GOVP1200702727
811.8 ㄴ293ㅎ
§11.8(N)
ㄴ — ㅎ
V.3

2006

제3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수상작품집

황소의 눈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기증등록
2007. 3. 09
01185785

목 차

▶ 책을 펴내며 ····· 4

▶ 체험사진 화보 ····· 6

▶ 수상작품

해오름상(대상)

황소의 눈물/소영한 ····· 13

황금들녘상(금상)

대학일반부

아웃백과 아버지/박희정 ····· 19

고등부

쌍둥이 송아지/고을립 ····· 23

중등부

우리 가족의 특별한 피서법/유혜진 ····· 29

흙사랑상 (은상)

대학일반부

함안, 농문선대의 9박10일/이양인 ····· 35

함께 짓는 농사/문혜숙 ····· 42

고등부

사과 과수원/이지원 ····· 51

서울아이, 자연을 선물 받다/박지은 ····· 55

중등부

깻잎 한 장, 땀 한 방울/윤여빈 ····· 60

또 다른 내 친구/김나연 ····· 64

반딧불이상(동상)

대학일반부

농촌은 우리의 심장/박흥모 ····· 71

아버님과의 약속/김경숙 ····· 78

국쟁이를 아시나요?/이상용 ····· 85

고등부

벼은이와 함께한 2001년/곽효은 ····· 91

'슬기 감자밭' 을 가진 농촌소녀 이야기/이슬기 ····· 96

나의 일일 농촌체험일기/정혜미 ····· 102

중등부

고추 따는 할머니/장성진 ····· 106

엄마의 품으로/남궁은비 ····· 111

밥이 내게 올 때 까지/김유진 ····· 115

▶ **심사를 마치고** ····· 118

▶ **심사위원** ····· 120

▶ **상명칭 의미** ····· 124

▶ **공모개요** ····· 126

농촌, 재발견의 시대다!

'정직한 사랑을 먹고 자란 가축은 결코 병들거나 죽지 않으며 은혜를 안다' 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 글로 옮긴 대상수상 작품 "황소의 눈물"을 읽고 잠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림부는 우리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농촌문화체험기 공모를 시작하였고, 올해로서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모두 1천130편이 응모되어 우수작 19편을 뽑았습니다. 부문별로 중등부 272편, 고등부 482편, 대학 · 일반부 376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마음을 훈훈하게 하거나, 감동적이고, 일부 안타까운 사연 들을 수준 높게 그려 주셨습니다. 도시민의 입장에서 본 농촌, 자식세대가 본 부모세대의 농촌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과 역할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농촌을 보는 눈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난날의 농촌은 소외되고 불편한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농촌은 낙후되고 노령화된 공간이 아니라 농업을 바탕으로 전통과 자연이 살아 숨쉬고 국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며,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농촌을 가꾸어 나가야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 재발견입니다. 즉 농촌의 가치가 재발견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산물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그곳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은 크게 불안 해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가치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우는 동시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이를 좋은 정책을 통해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림부는 도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촌에서도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국에 270여 곳에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은퇴인들이 농촌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마을 소득기반 확충, 생활환경 및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와 소득기반을 가진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고 서로 상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수된 작품은 1, 2차에 걸쳐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심사를 맡아 주신 신세훈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전북 전주영생고등학교의 소영한 군과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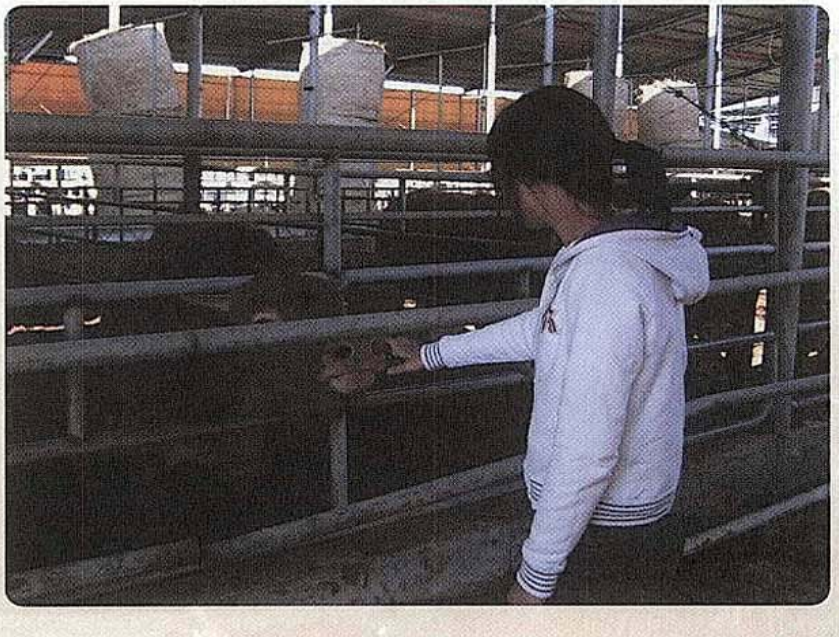
이번에 발간하는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수상작품집」이 많이 읽혀져 우리 농촌의 가치와 전통문화를 재인식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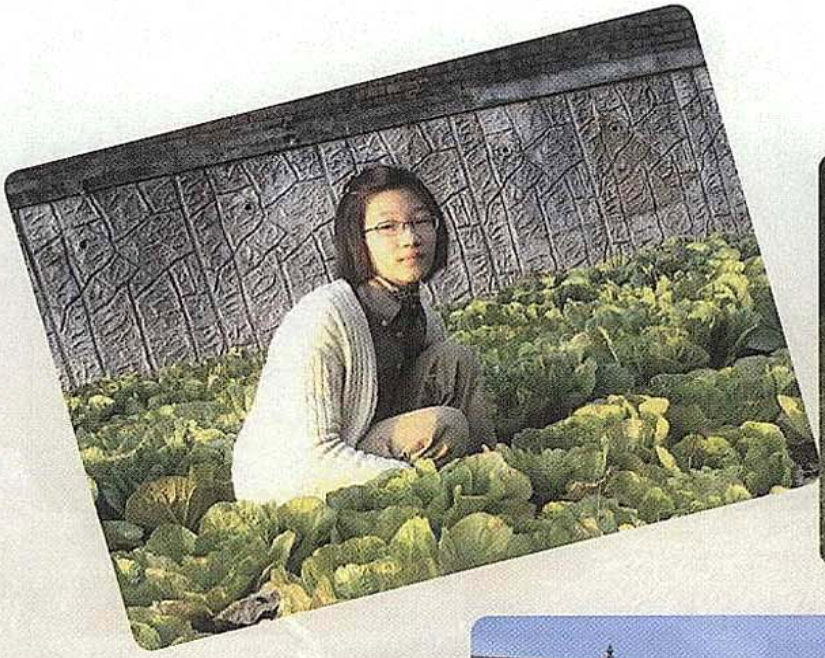
200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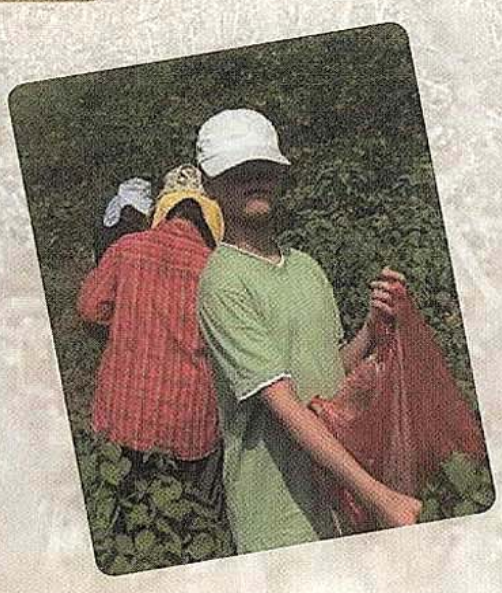
농림부 장관 박 홍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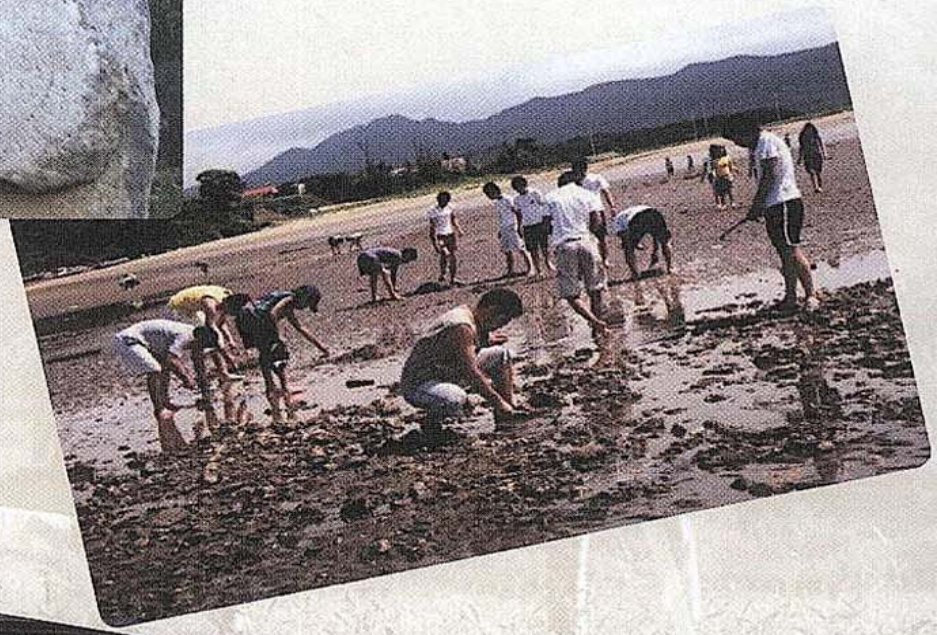
체험활동 모습



체험활동 모습







• • • 수상자 체험사진

여 백

대한민국국회도서관장서

대 상

해오름상

여 백

황소의 눈물

소 영 한 전주 영생고등학교 2학년

작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승용차를 타고 고향인 남원의 시골 마을에 갔다. 그곳에는 할머니와 막내 작은아버지 부부가 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로 이사온 지 십 년이 지났지만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빠짐없이 시골에 간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용돈과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다.

나는 용돈을 아껴서 27,000원을 주고 할머니 목도리를 샀다. 동생은 작은어머니의 모자, 아버지는 경운기 부속품과 작은아버지의 실험기구, 어머니는 할머니의 옷과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셨다.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이 저절로 좋아졌다. 운전을 하신 아버지도 휘파람을 부신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겨 손짓을 하고 있었다. 동생과 내가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사이 어느덧 고향마을에 도착했다. 고향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작은아버지 농장으로 갔다.

작은아버지는 농대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강원도에서 잠시 근무하시다가 고향을 버릴 수 없고, 농촌을 버릴 수 없다며 농사일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 둘째 작은아버지와 은행에 근무하시는 셋째 작은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할머니와 아버지는 막내 작은아버지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논 · 밭농사도 지었지만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산을 개간하여 초지를 만들고 한우를 길렀다. 두서너 마리로 시작한 농장이 지금은 큰 소 작은 소 합하여 25마리나 된다고 하셨다. 부모님께서는 막내 작은아버지가 가

장 효자라고 하셨다. 할머니께서 그전에는 간혹 몸이 편찮으셨는데 막내 작은아버지가 농사일을 시작한 후로는 한 번도 앓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농사일을 도우니까 운동도 되고 바빠서 아프고 싶어도 아플 새가 없단다.

농장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보았다. 농장 옆으로 난 개울에 다리를 놔야 했다. 기초공사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서너 길쯤 깊었다. 아래는 물이 한길이나 고였다. 그런데 작은아버지네 커다란 금빛 색깔의 황소가 경계를 넘어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아닌가. 목만 겨우 물 위로 내놓고 몸통은 물 속에 잠긴 채 '움메 움메!' 하고 살려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초리였다.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삽으로 경사를 내고 소를 몰아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모래라서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밀려나서 황소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포크레인을 불러라."

이윽고 포크레인이 도착했다. 작은아버지가 밧줄을 타고 웅덩이 속으로 내려가셨다. 물 속을 떴다 가라앉았다 들락거리면서 황소의 몸에 굵은 바를 매었다. 황소는 허우적거리지도 않고 얌전하게 있었다. 포크레인에 밧줄을 연결하고 끌어올리는 순간

"잠깐!"

작은아버지가 소리쳤다.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작은아버지는 젖은 옷을 훌훌 벗었다. 팬티만 남기고 속옷까지 다 벗었다. 옷을 한 가지씩 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 가더니 황소의 가슴과 배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 감긴 밧줄 사이에다가 옷가지들을 하나씩 밀어 넣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사람들이

"소의 몸에 상처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여."

"짐승을 저렇게 끔찍이 생각하누."

"소 살리려다 사람 얼어 죽게 생겼네."

"저러니 소 한 마리 실패한 일 없었제."

모두가 한 마디씩 했다. 작은아버지는 소를 기르면서 지금까지 한 마리도 병들거나 죽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철저한 예방과 사랑어린 보살핌 덕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크레인에 들려서 소가 무사히 웅덩이 밖으로 나왔다. 밧줄 감긴 자국에 상처 하나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좋아들 했다.

밧줄을 풀어주자 황소는 크게 몸을 털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머리에 묻은 물기를 핥았다. 작은아버지는 황소의 목을 안고 얼굴을 부볐다. 이때 나는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황소의 눈물을 본 것이다. 크렁크렁하게 맺힌 눈물이 눈을 껌벅이자 주르르 흘렀다. 곁에 계신 아버지께 속삭이듯 말씀드렸다.

"아버지, 황소가 울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동물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 드라마나 소설을 본 것 같은 진한 감동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짜릿짜릿하게 했다. 우리에게 고기와 가죽만을 주는 황소가 아니었다. 사랑도 주고 눈물도 주는 황소였다.

장작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작은아버지와 황소의 몸을 덥혔다. 내가 작은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황소의 눈물을 보셨나요?"

"아니."

"아까 황소가 울었어요."

"뭐 그깐 일로 울기까지 하나 그래. 황소답지 못하게."

말씀은 그렇게 하신 작은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작은아버지, 목부 되시는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하지 않는다. 내 꿈을 이룰 때까지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겨 나갈 것이다."

"꿈이 뭔데요?"

"지금은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 세계화 시대란다. 외국의 수입 고기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경쟁에서 지면 농업도 축산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농업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학도인 내가 할일이 뭔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세계에서 가장 육질이 좋은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생산하는 일' 이라고 믿게 되었다. 크게 보면 우리 농산물 전체를 그런 식으로 생산해야 되는 일이지만 쇠고기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지. 한우는 수입 쇠고기에 없는 독특한 맛과 향 그리고 영양이 있단다. 이것을 더욱 연구하고 개발하여 세계인들의 입맛에 길들여지게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나온 대학의 교수님들 지도를 받으며 육종에 전념하고 있는 거란다. 웅덩이에 빠졌던 저 황소가 몇 번의 실험을 거친 종우였지 뭐니."

물기가 마른 황소를 보니 황금사자의 털빛이었다. 잘 생긴 황소였다.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황소야,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 작은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네가 잘 도와다오."

앉아 있던 황소가 일어나면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황소를 대하는 작은아버지를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정직한 사랑을 먹고 자란 가축은 결코 병들거나 죽지 않으며 은혜를 안다.' 라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작은아버지의 꿈이 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번영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찌 도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금 상
황금들녁상

여 백

아웃백과 아버지

대학 · 일반부

박 희 정 경기 의정부시

"애들 데리고 아웃백 한 번 가 볼까?"

회사 여직원들과 어울려서 갔다와 봤다면서, 남편은 무척이나 우리 가족을 그곳에 데리고 가고 싶어한다. 인터넷 검색어 1위, 된장녀가 아니라도 익히 그런 곳은 비싸다고 들었던 터라 자의 반 , 타의 반 못이기는 척 따라가 보았다. 그곳의 인테리어는 호주 국기가 늘어서 걸려 있고, 호주의 청정 지역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어서, 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호주의 레스토랑인 줄 잠깐 착각했다. 4인 가족 식사로 버섯요리와 비프 스테이크, 그리고 파스타와 음료수를 곁들였더니 세금까지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좀 속이 쓰렸지만 나름대로 맛있게 음식을 먹은 터라 서비스로 챙겨 주는 빵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식당은 호주의 것이 아니고 미국의 체인점이었다. 알고 보니 미국산 쇠고기에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호주인 것처럼 꾸민 느낌이 많이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맛있게 먹은 버섯파스타. 이 둘은 결국 소와 돼지, 그리고 버섯을 재배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 나를 밀어 넣는다.

그 해 겨울, 아버지가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사들인 송아지마저 허무하게 죽고 나자 우리 집안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소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 읍내 수의사가 와서 수술을 했지만, 끝내 소는 소생하지 못했다. 점심 먹고 시작한 수술이 해질 녘이 되어도 끝나지 않고, 일부러 수술을 안 보려 밭에 나가신 부모님을 대신하는 심정으로 나는 문틈으로

비쳐지는 마당을 뚫어져라 보았다. 음식물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처럼 송아지의 내장을 꾹꾹 눌러 담으며 수술을 할 때부터 뭔가 미덥지 않더니 결국 송아지는 죽고 말았다.

"살려낼 확률은 50%에 불과합니다."

수의사가 그렇게 말 할 때에는 이미 죽을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는 말과 같았다.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소 값만 잃는 거지만, 수술비까지 합하면 소 한 마리와 반 마리 값이 추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에 대한 존경심을 놓지 않으셨다. 만약 그 송아지가 자식이라면 1%라고 해도 수술을 할 거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겁에 질린 눈으로 속수무책이었던 점박이는 그저 하라는 대로 멍석에 몸을 뉘었는데, 그 커다랗던 눈은, 마취로 스르르 눈을 감자 끝내 다시 뜨지 못했다. 송아지가 숨을 거두자마자, 수의사는 다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고기 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서두르자고. 하지만 부모님은 소를 푸줏간에 넘기지 않았다.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송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신 것은 평소 부모님의 땅에 대한 태도, 가축에 대한 태도, 인간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나오신 거였다. 이제 빚은 더 늘었고, 남은 일은 그저 농한기에 새끼 꼬는 기계를 하나 들여 먼지 풀풀 날리는 가운데서 새끼줄이나 한 타래씩 만들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벌어졌다. 눈 내린 딸기 밭을 미군부대가 모두 짓이긴 것이었다. 키가 천장까지 닿던 그 흑인 장교는 뭐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씨부렁거리면서, 당시 돈으로는 무척이나 컸던 300만 원의 보상금을 주었다. 우린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창 붐이 일기 시작한 버섯 하우스를 시작했다. 버섯은 우선 짚을 사다가 단단하게 묶어 작두로 통나무처럼 잘라 느타리버섯균을 골고루 묻혀 이주일 동안 푹 찌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까딱 잘못하면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나야 할 자리에 퍼렇게 썩어 가기 십상이었고, 그러기 시작하면 겨울농사는 그대로 끝장이었다. 정말이지 정성에 정성이 들어가야 가능

한 일이 버섯농사였다. 느타리 종균을 볏단에 발라 몇 날 며칠을 찌어내며 수백 개가 넘는 연탄 화로를 하루에 세 번씩 갈아 줄 때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부모님의 간절한 모습을 보자 난 꾸지도 않은 꿈을 꿨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불이 나는 꿈이 좋다는 걸 알고 버섯집이 막 불났다고 얼굴도 붉히지 않은 채 말이다.

적당한 열기, 시간 맞춘 환기, 그리고 나의 거짓말(?)에 힘입어 드디어 버섯은 솟아났다. 까맣게 돋던 버섯, 하루만 지나면 벌써 상품이 되는 그 화수분 같던 버섯 하우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집안의 훈기였다. 배추, 무, 당근처럼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내고 수확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꼭 지나야 하는 작물과 달리 버섯은 2주간의 훈증 기간만 지나고 버섯이 솟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겨울 내내 우리 집 쌈지 돈 역할을 했다. 이젠 아침에 차비를 달라고 할 때도 덜 죄송스러웠고, 문제집을 사 달라고 할 때도 당당했다. 뭉텅이돈은 가을 추수로 가능했고, 소소한 생활비는 매일 솟아나는 버섯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릴 살린 버섯 하우스는 몇 년 후에 다시 우리를 시련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버섯 하우스를 씌우는 보온 덮개가 바로 말썽이었다. 겨울농사를 갈무리하고 못 쓸 것은 이것저것 모아서 태우는데, 불씨가 덮개에 옮겨 붙은 거였다. 이 재질의 성분은 다른 가연성 재질처럼 활활 타는 것이 아니고 슬금슬금 타들어가 그야말로 나중엔 손쓸 수 없이 번지는 거였다.

그런데, 문제는 버섯 하우스 옆에 있던 돼지 막사였다. 종돈을 키우고 있던 막사였는데 새끼를 밴 수 백 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아비규환의 막사를 향해 엄마가 부르짖던 절규를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일제의 발악과 6 · 25전쟁까지 거뜬하게 겪으셨던 아버지가 그토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까맣게 죽던 얼굴도 난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때, 속수무책이었던 우리들에게, 그저 아무 것도 도와드릴 수 없어서

울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괜찮다고 연상 말씀하셨지만, 십 리는 더 들어간 것 같은 쾡한 눈을 보고 우린 한없이 흐느껴야 했다.

엄마는 우리가 물어야 할 천문학적 돈보다도, 그 새끼 가진 돼지들이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며 눈물을 흘리신다. 결국, 부모님은 4천만 원을 돼지 주인에게 주고, 포크레인으로 돼지를 묻어주셨다. 그 때도, 많은 사람들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니니까 고기를 팔라고 제안했지만, 부모님은 일절 듣지 않으셨다. 그건, 돼지 주인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우린 버섯을 포기하고 파로 작물을 바꿔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다. 파주에 LCD공장이 들어와서 공장 부지로 팔면 얼마든지 노후를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시지만 부모님은 힘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지으시겠다며 오늘도 부추밭에 나가셔서 작물을 거두신다.

가끔, 난 그런 생각을 한다. 아버지가 미국이 그러한 것처럼, 죽은 고기를 다시 소에게 먹이면서 가축에 대해 존경심을 갖지 않았다면, 난 당장의 이익은 보았겠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잃고 살지는 않았을까? 생명을 마치 산업 생산품과 동일하게 여기며 고기 값을 챙기기에 바빴다면 내 삶에 있어 농촌 체험은 어떠한 사색도 끼어들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불과했을 테니까 말이다.

오늘, 비프스테이크와 버섯파스타를 먹으며, 우리 집에서 기른 소는 비록 죽고 돼지도 땅에 묻혔지만, 그것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시는 부모님이 계셔, 농촌은 영원한 안식처럼 느껴져 남들이 갖지 않은 보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다.

지금도 농촌에서 토양과의 평화를 지키려 애쓰고, 비록 생산성이 높고 수지가 맞는다 해도 연작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 대신 부추로 눈을 돌리시며 새로운 작물을 꾸준히 돌려 지으시는 아버지.

오늘 따라, 아버지가 더욱 그립다.

쌍둥이 송아지

고등부

고 을 립 예산 삽교고등학교 2학년

정자나무가지에는 한낮의 폭염 속에서도 이름 모를 매미들이 목청 높여 화음을 맞춘다. 오랜 만에 외삼촌댁에 가기 위해 시골길을 걸으니 그동안 학교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신선함과 해방감이 느껴진다. 여름방학을 맞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간 곳은 축산업을 하시는 외삼촌댁이다. 친구들은 안면도 해변을 가자고 하였지만 나의 유년 시절, 송아지처럼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고마우신 두 분이 나에게는 부모님 이상으로 소중하고 마음이 편해 휴식 겸 안부 겸 외삼촌댁으로 향했다.

외삼촌은 서해에서 가장 높다는 오서산 기슭에서 소를 키우신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덕에 한때는 외숙모가 나의 엄마로만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두 엄마 사이에서 울어버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풍요로웠던 유년의 추억일 뿐이다.

"외숙모—"

"응, 그래. 우리 을립이가 왔네. 혼자 왔니? 대견하구나. 고모부님과 고모님도 잘 계시지?"

멜빵바지 작업복을 입고 축사에 물을 뿌리던 외숙모가 밀짚모자를 눌러 쓴 채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준다.

멀리서도 외숙모임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은 노랑 장화 때문이었다. 비가 올 때나 쓸 법한 노란색 장화와 비옷들은 외숙모님의 단골 마크가 되어 있다. 멜빵바지에 노랑 긴 장화를 신어서인지 외숙모는 더 더워 보였고, 열심히 일

하시어 겉옷까지 모두 젖어 있었다.

나는 사가지고 간 수박을 내려놓으면서 "외숙모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러다가 더위 먹겠어요." 하였더니 외숙모님은 잠시 나의 손을 반갑게 잡았다가 놓으시며, "을립아, 조금만 기다리렴."하시며 날씨가 너무 더워 갓 태어난 송아지 새끼들이 병날까 물을 좀 더 뿌리고 오시겠다고 하였다.

밖에서 트랙터를 몰고 외삼촌께서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다.

나는 외삼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외삼촌, 귀여운 송아지가 있다면서요? 똘망똘망, 큰 눈을 보고 싶어요, 어서요."

지난 기말고사가 한창일 무렵 외삼촌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에는 두 눈 가득 귀엽고 굳세 보이는 황토 빛 쌍둥이 한우 새끼 송아지들의 사진이 있었던 것이었다. 방학과 함께 이곳 오서산에 급히 오고 싶었던 것도 이 쌍둥이들이 큰 몫을 했다.

나는 외삼촌에게 송아지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외삼촌은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잘되었다며 네가 도와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다. 수유하는 과정을 많이 보았지만 막상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큰 눈망울 속에는 오직 순종과 귀염이 있을 뿐이었다.

"잘 먹이네."

무뚝뚝한 외삼촌의 성격을 보매 분명 칭찬의 말투였다. 송아지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외삼촌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한없이 유쾌했다. 자연과의 동화, 그 기쁨을 절실히 느낀 목장에서의 하루였다.

"톡톡."

비가 왔다. 새벽 5시임에도 불구하고 목장의 풍경은 변함이 없다. 외삼촌께서는 한우를 쓰다듬고, 외숙모께서는 자식 같은 소들에게 먹일 죽을 쑤는

모습. 그들이 만드는 풍경에 간간히 무거운 빗방울과 세찬 바람이 불지만은 풍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단지 수채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아름답게 꾸며 주는 변화에 불과하다. 안쓰러움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나의 눈빛은 어느새 감동으로, 부러움으로 벅차올랐다.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외삼촌—, 외숙모—"

목장의 푸른빛 나날은 깊어만 갔다.

외삼촌은 칡넝쿨을 사료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땀으로 목욕하며 일을 하고 계셨다.

나는 고생하시는 외삼촌께 미숫가루를 시원하게 타서 한 컵을 건네 드렸더니 단번에 마셔버리고 한 잔 더 달라며 고맙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행복을 시샘하듯, 사건은 벌어지고야 말았다.

잠시 후 코란도 승합차가 목장 앞에 멈추어 섰고 차에서는 배가 튀어나온 건장한 아저씨가 내렸다.

한참 동안 후 그 분과 외삼촌은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나와 외숙모가 보는 앞에서 외삼촌은 사료 공급업자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쌍스러운 말까지 오가면서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외삼촌은 자식처럼 아끼는 어미 소의 엉덩이를 후려쳤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모두 끌어가라며 큰소리를 외치자, 그 아저씨는 오히려 외삼촌께 사과라도 하듯이

"황사장 왜 그려! 나도 자금이 달려 이제 더 이상 장사하기 힘들어 몇 억이나 되는 외상값 때문에 회사로부터 사료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라며 자신을 오히려 이해해 달라는 하소연을 하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료 값과 하락하는 한우 값.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가격 안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이 현실과 맞물려 잇속을 챙기는 유통업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련이 빠른 시일 내로 극복

되지 않으면, 목장은 영영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름다운, 녹엽의 목장을 문 닫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실로 절박했다. 다음날, 외삼촌은 아침부터 불쾌한 기분이었다. 아니, 불쾌로 과장한 슬픔이겠지. 사료 값을 낼 재간이 없어 소를 대신 보내는 것이란다. 애써 길러 온 젊은 소 한 마리가 사료 공급업자의 손에 끌려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외삼촌의 얼굴에 눈물 자욱이 만들어지곤 했다.

"저게 어떤 소인데. 새끼도 낳아야 하고, 저것들 팔아서 대학에 다니는 정남이 학비도 보태고 세금도 내야 할 거 아녀! 으흑흑……."

그랬다. 한때는 소가 재산의 척도가 되기도 했었다. 농촌에서 서너 마리의 소는 밥이 되고 옷이 되고 학비가 되고 결혼 밑천이 되고 장사 밑천이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하나, 둘 잃어가고 있다. 그 날의 태양은 쓸쓸한 외삼촌의 얼굴을 유난히도 비추었다.

외삼촌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 방학 숙제를 하나 해야 하는데, 사회 숙제인데요. 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를 대표할 특산물에 대한 리포트 숙제이거든요. 친구 여경이는 한복을 주제로 한댔어요. 난 좀 특별하게 우리의 소, 한우에 대해 쓸 생각이에요. 외삼촌 도와주실 거지요?"

"……"

침묵의 시간은 기둥에 걸려 있는 거미줄을 타고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 번 말씀 드렸다.

"외삼촌! 그동안 우리 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FTA 협정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에서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벌써 파인애플, 바나나, 레몬에서 망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농산물들이 수입되고 농부들이 할 일을 잃어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제 곧 축산업도 뒤처질 것

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이 멋 있고 아름다운 목장과 저 늠름하고 힘이 넘치는 녀석들을 다 버리실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목장을 개척하고 일구어 놓은 것인데.……

외삼촌! 아프리카의 보물섬이라 하는 남아프공화국을 아시죠? 왜 그 조용필 씨가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라는 노래 말이 있는 곳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낙후된 농업을 살리기 위해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파리에서 정부 차원의 식용 야생 동물들을 세계 최고의 요리로 대접하며 돈을 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도 세계 최고의 맛 좋고 모양 좋은 한우를 만들어요. 네~? 외삼촌! 그동안 외삼촌이 사료 값 절약을 위해 칡과 옥수수를 섞어 사료를 만들어 먹였더니 소가 건강하고 고기 맛도 좋게 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힘 내시고 새롭게 한우를 단장시켜 보자고요!"
라며 어색한 미소로 외삼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외삼촌은 얼마간 생각을 하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어린 네가 나보다 나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좋아! 외국 사람이 우리 불고기와 갈비를 얼마나 좋아하더냐? 한우는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될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어. 그동안 30여 년간 배운 도둑질이라야 짐승 키우며 농사지은 것 밖에 없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지—한때 나는 정부 탓과 원망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할 수 는 없겠구나. 을립아? 너의 말을 듣게 되니 새로운 힘이 생기는구나."
하며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외숙모가 내어놓은 삶은 옥수수를 먹으며 새로 태어난 송아지들의 이야기와 한우 이야기로 나의 사회 숙제를 완성해 갔다.

다음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꾸 상념에 젖어들었다.

수입농산물의 공세로 입지가 좁아지는 우리 농산물, 소득이 따르지 못해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 후계인도 없이 고령사회로 가는 노쇠한 우리 농촌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과, 또한 우리 농업을 더욱 압박하는 FTA 협상도 세계화 · 개방화의 역풍도 또한 생각해 보았다. 특히 아직 경쟁의 준비가 덜된 농산물들의 수입을 위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힘이 벅차다는 것을 외삼촌으로부터 듣기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며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가 무역협정을 서둘러 맺기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힘이 생기는 시점을 잡아 타협과 협상을 하는 것이 더욱 우리나라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렇다. 세계적인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적자생존의 냉혹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영농기술 혁신을 통한 고품질 농업상품을 개발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경쟁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FTA는 우리 외삼촌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3백만 우리나라 전체 농부들의 문제이며 걱정거리인 것이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진다.' 는 속담처럼 위기 뒤에는 항상 새로운 희망이 있는 법이다.

언제나 낙후된 농사나 사육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쇠고기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사육법과 먹이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가장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외삼촌의 포부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본다.

달리는 버스 창 밖에는 "가장 우리다운 농산물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플랜카드가 바람에 너울거리고 있었다.

우리가족의 특별한 피서법

중등부

유 혜 진 대전 느리울중학교 3학년

드디어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다. 유난히 무덥다는 올 여름 날씨도 해방감에 젖은 나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번 여름 방학에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 아래 우리 가족은 농촌 체험의 기회를 갖기로 하고 가까운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에 있는 외가를 찾았다. 설렘을 가득 안고 찾은 그곳은 도시와는 다른 무공해 자연 내음이 가득하였다.

우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농사지으신 무공해 상추와 고추를 따다가 우리 가족 모두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아버지는 고향의 맛이라고 하시며 정말 맛있게 드셨다. 도시가 고향인 나이지만 풋풋한 상추의 향과 맛이 분명 도시의 마트에서 사 먹던 상추보다 훨씬 향긋하고 좋았다.

점심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근처에 있는 성흥산성에 올라가 보았더니 임천, 강경 시내 그리고 농촌의 넓은 들녘과 금강이 한 눈에 내려다 보였다. 막혔던 가슴을 뻥 뚫어 주는 듯한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어와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 생활 속 찌든 때를 다 씻겨 내 주는 듯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성흥산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성과 사비성을 지키기 위하여 금강 하류 부근에 쌓은 석성으로 백제 동성왕 23년에 위사좌평 백가가 쌓았다고 전하는데, 당시 이곳이 가림군이었으므로 가림성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셨다. 이 성의 형태는 산꼭대기를 빙 둘러 쌓은 테뫼식으로, 돌과 흙을 함께 사용하여 성벽을 쌓았으며 이 성은 백제 때 쌓은 성곽 가운

데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성이고, 옛 지명을 알 수 있는 유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셨다. 또한,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 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해돋이 행사를 한다고 한다.

처음에 아버지께서 산에 올라가 보자고 하셨을 때, 시골 산에 볼거리가 뭐 있다고 가자고 하시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막상 올라가서 성흥산성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들을 보니 아버지를 따라 산에 다녀온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에 올라갔다 와서인지 피곤해서 그 날 저녁은 오랜 만에 곤하게 잠들었다.

다음날 시끄러운 매미 울음 소리에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이 밝아 있었다. 도시에서 아침을 알리는 요란한 알람 대신 천연 알람, 매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니 마음이 훨씬 가뿐하고 좋았다. 엄마가 차려 주신 아침밥을 먹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는 밭에 가서 고추를 땄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라 무조건 다 따면 되는 줄 알고 파란고추, 빨간 고추 구분 없이 땄더니 외할아버지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이렇게 파란 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따는 거란다." 라고 하셨다. 내가 따 버린 파란 고추들을 보니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따버리는 바람에 빨간 빛으로 곱게 익을 기회를 빼앗겨 버린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가려 똑똑 따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지만 고추의 매운 내 때문에 재채기를 몇 번이고 해야만 했다.

한참 동안 고추를 따고 있는데 저편 밭 끝에서 아버지께서 큰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돌아보니 아버지께서는 허수아비의 옷과 모자를 벗겨 입으시고는 허수아비 흉내를 내며 서 계셨다. 허수아비가 되신 아버지 모습에 우리 가족은 모두 깔깔대고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었다. 고추밭 열기 속에서 잠시나마 힘들고 피곤함을 잊을 수 있는 즐거운 한때였다.

오후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농사일을 할 수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있는 옥수수를 따 보았다. 옥수수에 그렇게 긴 수염이 달려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 따 온 옥수수를 할머니께서는 맛있게 삶아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금방 삶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와 냉장고에 있던 찬 수박을 챙기시고는 나에게 마을회관에 가 보자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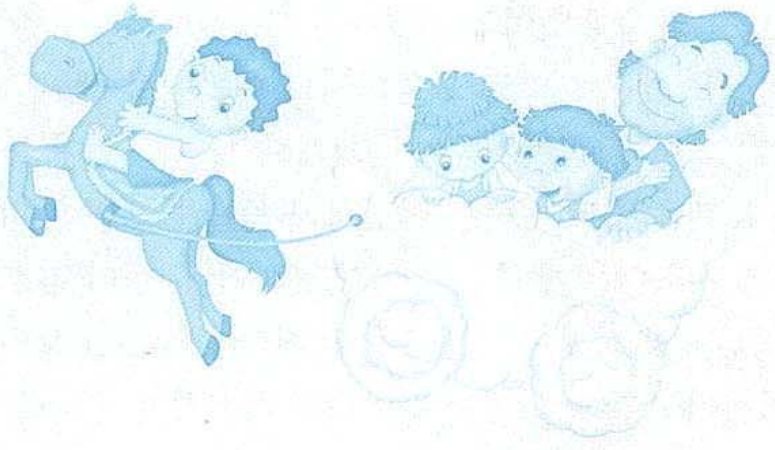
마을회관에 가 보니 더위에 들일을 나가지 못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가져온 옥수수와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시며 즐거워하셨다. 도시에서는 이웃 주민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어 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들로 웃음꽃을 피우는 그 분들을 보았을 때 책을 통해 알았던 이웃의 정, 이웃사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느끼며 마음이 훈훈해졌다.

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칠산리라는 마을에 갔더니 이장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이곳은 아버지의 소개로 내가 살고 있는 대전의 아파트 단지와 1사1촌(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이었다. 그래서인지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은 아버지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2003년도에 인연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쌀과 농산물들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직거래로 사먹고 있어 농촌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있다는 이장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흐뭇하였다. 돌아서서 오는 길에 이장님과 부녀회장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거라며 싱싱한 오이를 한아름 가득 싸주셨다. 이것이 농촌의 인심이고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한 아름 안고 있는 오이만큼 풍성한 정을 담아 돌아왔다. 외가에 다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1박 2일의 짧지만 값진 농촌 체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름 방학은 정말 값지고 알차게 보낸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가족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농촌 체험을 통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고 도시에서 느껴 보지 못한 정도 느껴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다음에도 피서객으로 넘치는 유명 피서지보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농촌에서 여름나기를 해 봐야겠다. 또 외가에도 자주 들러 농사일로 바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

집에 돌아와 내 손으로 직접 딴 고추를 먹는 기쁨은 이번 농촌 체험이 내게 준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었다.



은 상

흙사랑상

여 백

함안, 농문선대의 9박 10일

대학 · 일반부

이 양 인 부산 서구

농문선대? 아마 농문선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여름이 되면 농활을 가지요. 그들은 농활대라고 불립니다. 농문선대는 농활대와는 조금 다른 9박 10일을 보내는데, 농활대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잠든 사이에, 농문선대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어르신들께 보여드릴 마당극을 준비한답니다. 사실 그래서 농활대보다 조금 더 고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죠. 농문선대만의 기쁨과 감동을.

저희 농문선대가 간 곳은 함안 동촌입니다. 마을회관을 숙소로 하려고 했으나, 마을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는 마을과 도보로 20분 거리의 집하장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여농회장님께서 의지가 워낙 강하셨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밤 연습을 끝내고 새벽에 마을회관까지 가서 자야해서 조금 더 피곤했지요. 하지만 저희에게 써주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답니다.

동촌마을은 하우스 재배가 많습니다. 토마토, 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수월할 거라는 생각에 기뻐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첫 날에는 토마토 선별 작업을 했는데, 토마토 선별 기계가 있어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께서 잘 익은 토마토는 한 곳에 따로 모아두고 약간 덜 익어서 녹색이 여기저기 있는 토마토를 선별기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크기별로 나누어

진 덜 익은 토마토를 상자에 포장했고요. 저는 궁금증을 참다못해서 결국 아저씨께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소비자들에게 드리려면, 덜 익은 토마토를 넣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가는 동안에도 토마토들은 익는다는 것이지요. 잘 익은 토마토를 포장하면 가는 동안에 상해 버린답니다. 제 생각이 짧았음을 느끼며 계속 토마토를 포장했습니다.

밤에는 마당극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토끼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공연할 마당극은 토끼전을 각색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한-미 FTA와 그에 따른 쌀 개방에 관한 내용을 넣은 토끼전이었지요. 토끼는 우리 농민을 대변하는 입장이어서, 대사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 분들과 한마음으로, 연기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의 농민상(像)을 투영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대사를 외우고, 토끼 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 낮에 일할 때는 농민 분들의 의견도 듣곤 했습니다. 보통 연습은 새벽 3시나 4시까지 계속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에 기상해야 하는 고된 생활이 7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잠에 덜 깬 아이들도 깨울 겸 집하장에서 마을까지, 다시 집하장까지 구보를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마을에서 집하장까지만 구보했지요. 아침에 남학생들이 깨워서 집하장까지 구보할 때는 정말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익숙해졌을 때는 도시와 다른 구수한(?) 향기와 시원한 새벽 공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보를 마치면 밥을 먹었지요.

돌아가면서 밥을 직접 지었는데, 어떤 날은 반찬부터 국까지 모두 짠 날이 있는가 하면 너무 싱거워서 먹기 곤란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다고 해서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9박 10일간의 규율 중에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농촌에 왔는데 농민들의 땀의 결실인 쌀로 지은

밥과, 여러 작물로 만든 반찬을 남길 수가 있나요. 받은 밥과 반찬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농민들께서 트럭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 작업반장 선배가 대여섯 명씩 조를 나누어 줍니다. 저희는 모자와 토시, 몸빼바지에 고무신까지 갖추고 힘차게 트럭 짐칸에 오릅니다.

둘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여학생들은 골조를 뜯어내는 작업은 할 수 없었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토마토를 정리했습니다. 방울토마토였는데 일단 가지를 다 잘라내고 나면 기다란 비닐하우스만큼 길게 방울토마토 가지가 널립니다. 그것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다음 싣고 나기기 좋게 1미터 정도의 길이로 돌돌 말아 두지요. 나중에는 그것을 싣고 나가서 태웁니다. 태우는 동안 비닐하우스 바닥에 흩어진 토마토들과 잎, 가지들을 쓸어서 바닥을 정리합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쉬운 일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생각보다 더 더웠고, 천장에 난 창문으로 햇살이 따갑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토마토 줄기는 어른 손가락 굵기만큼 두꺼웠고 단단해서 자르고 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끙끙대는 저희에게 할머니들은 웃으시며 요령도 일러주시고 시범도 보여주셨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유쾌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투덜거리고 끙끙대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시쯤 되자 저희를 불러내셔서 냉면, 수박, 식혜 등 시원한 먹을거리를 가득 주셨습니다. 한 시부터는 너무 더워서 일하기 힘들다며 낮잠도 권하셨지요.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한 저희는 두 시간의 꿀 같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 시 반쯤부터 다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저녁 즈음 집하장으로 돌아오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온 아이들도 피곤에 절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규

율인 벽에 등 기대지 않기로 인해 누울 수도, 벽에 기댈 수도 없어서 서로 등을 기대고 쉬었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녁을 먹고 씻고 나면 다시 극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비슷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딱 한 번 특이한 일을 맡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니, 특이한 일은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피뽑기' 였습니다. '피'는 논에 있는 모 이외의 잡초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트럭을 타고 일하러 가는데, 왠지 멀리 가는 것 같더니 넓은 논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아저씨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피를 뽑아서 모에 닿지 않게 논바닥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고, 거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원한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일할 생각을 하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논 속에는 온갖 벌레와 올챙이들이 득실거렸고, 벌레를 극도로 싫어하는 저에게는 논 속에 맨발로 들어간다는 사실부터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은 저에게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벌레를 그다지 겁내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논도 역시 하우스 이상으로 길었고 피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세 줄씩 맡아서 피를 뽑으며 논 끝까지 갔다가 다시 다른 세 줄을 맡아서 피를 뽑으며 돌아왔는데, 그렇게 한 번 갔다오면 다들 얼굴색이 조금씩 변해 있습니다. 모자를 써도 물에 비친 빛에 얼굴이 익어서 발그레해져서 돌아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으며 도로로 나와서 뜨거운 도로에 허리를 지지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논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갑자기 빵빵 트럭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아저씨께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가득 사들고 오십니다. 농촌에서 일한 뒤에 먹는 아이스크림은 새로웠지요. 멀리 나갔다 오셨을 아저씨를 생각하니 감사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멀리까지 다녀오신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에 말이지요. 농활 내내 느낀 거지만 농민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 넉넉하십니다. 도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느꼈던 마음의 벽이 그분들께는 없다고 할까요.

7일째 되는 날에는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농민 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저희가 연습한 마당극도 보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장님께 양해를 구해 마을 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농민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마을회관에서 하는 마을 잔치에 오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디어 마을 잔치가 시작되는 4시. 그동안 연습해 온 마당극을 처음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 정말 두근두근하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대사를 되뇌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한 분 두 분 오시기 시작하고, 저희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내어놓고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다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한 저희지만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자 공연을 준비했으니 잘 봐주시길 바란다며.

드디어 첫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조그만 몸짓에도 크게 웃어 주시고, 토끼 잘한다며 중간중간 말씀해 주신 덕분에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농사짓는 장면에서 엉뚱하게 토끼가 농작물 다 갉아 먹는다며 토끼 잡아내야 된다고 하시는 어르신도 계셔서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들이 토끼를 꾀어내는 장면에서는 한 목소리로 거북이 저놈들 혼내줘야 한다며 극에 몰입하셨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극의 마지막에 토끼가 어르신들께 긴 이야기를 해드리며 끝이 나는데, 끝나고 바로 풍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흥겹게 잡색을 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려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어르신들께서 막걸리를 한 잔씩 권하시며 정말 잘 봤다고, 잘했

다며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잠 못 자고 연습했던 피곤함이 싹 씻겨 나갔습니다.

다음날은 함안의 모든 마을을 돌며 공연을 했습니다. 트럭에 몸을 싣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알리려고 풍물놀이를 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다가도 지신밟기를 해달라고 하시면 마을 어귀의 다리 같은 곳에서 지신밟기도 해드리고 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공연을 하고 풍물놀이를 하며, 농민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어떤 마을에서는 잔디밭, 어떤 마을에서는 진흙탕에서도 공연했지만,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극 참여는 한결 같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면 붙잡으시며 뭐 좀 먹고 가라고도 하시고, 좀 더 놀다 가라고도 하셨지만 많은 마을을 돌아야 하기에 그러지 못하고 온 것이 못내 죄송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순회 공연은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고, 마지막 마을에서 공연을 하고 지친 몸을 트럭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본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서 하늘에 가득 뿌려진 별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답니다. 깨끗한 공기 속에 하루 종일 흘린 땀을 식히며 달리는 트럭에서 다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민 분들의 따뜻한 인정을 각자의 가슴속에 품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9일째 되는 날 함안에 온 농활대와 다 함께 모이기 위해 저희는 정든 동촌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는 인정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오시며 섭섭해 하시기도 했고, 부랴부랴 먹을거리를 챙겨서 두 손 가득 쥐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떠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농민 분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내년엔 어떤 마을에 가게 될지 모르지만, 꼭 다시 농문선대로 와서 동촌 마을 어르신들을 다시 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

며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농민 분들은 농사가 천직이신 듯한 분들입니다. 쌀처럼 구수하고 따뜻하면서도 결코 질리지 않는 농민. 저는 사실 농활 가기 전에는 FTA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서 교양 시간에 전 농민회 회장님의 설명도 듣고 하면서 알게 되었지요. 지금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게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인데 쌀개방이 되고 지원이 더 줄어들면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생각해도 막막합니다. 물론 특용작물 재배 등으로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보도를 보았지만 그것도 극소수가 아니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농촌에 가서 농민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며, 저는 이번에 느끼고 얻은 것이 많습니다. 농민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 농작물에 대한 그들의 각별한 애정, 정직한 그들의 결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평생을 사랑해 오던 농사일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의 힘든 상황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이 죽으면 결코 우리도 잘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극 중간에 토끼가 농사지으면서 흥겹게 부르던 노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은 왜 찾느냐."

함께 짓는 농사

대학 · 일반부

문 혜 숙 서울 서대문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작은마차 끝집, 이는 내가 시간이 나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숫자가 아닌 끝집이라는 표현으로도 우편물이 배달되는 집의 주소이다. 이곳 안주인의 경력은 남다르다. 내가 사는 서울 시내 한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주부 독서모임(30여 명이 회원)에 그녀는 회장으로, 나는 회원으로 인연을 맺어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통해 만나고 생각을 같이 나누었다. 그런데 그녀는 우리 모임을 작년 2월 말 겨울방학 캠프로 끝을 맺었다. 그녀보다 1년 전에 영월에 가서 농사지을 땅을 물색하고 빈 집을 구하고 손수 보일러를 놓는 억척을 부려가며 먼저 영월읍 사람이 된 남편을 뒤따라 나선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남편 혼자 보내고 서울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자신과 태형이(초등5년생 아들) 동의 없이 혼자 떠난 남편이 미운지, 아들 교육이 염려 돼서인지 서울에 꿋꿋하게 남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녀가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 회장이 떠난다는 소리에 우리 모임의 위기도 함께 찾아오는 듯했고, 서울서 영월이라는 거리감이 다시 그녀를 보기 힘들 것(지금은 영월 아줌마로 다시 보게 되었지만)이라는 막연함으로 인해 우리의 송별회는 참 슬펐다.

그런데 작년 봄에 전 회장과 친한 회원이 훌쩍 영월에 가서 고구마를 심어주고 산나물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왔다는 소문이 돌자, 회원들 사이

에는 그곳에 한 번 가자며 날짜를 잡자고 했다. 그러다가 고추 농사가 시작될 무렵 지난 주는 누구네 가족이 영월에 가서 일손을 돕고 왔다네, 이번 주는 누구네가 간다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초등학생 둘과 중학생,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는 나로서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도무지 짬을 내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영월 부부가 주선한 그곳 거운 분교 어린이들과 우리 모임 회원 아이들과 같이 하는 여름캠프에 나는 큰맘 먹고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하고 왔다. 영월 주인 내외는 도시처럼 학원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곳에서 외아들 태형이 영어 공부를 시키며, 전교생이 8명밖에 안 되는 거운 분교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공부를 함께 하는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농사일에 익숙하지도 않을 터인데 그런 자원봉사까지 하는 그네들이 같은 연배의 사람으로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였다.

한 번 시작한 영월과의 인연은 그 후 계속되었다. 작년 가을 그들 부부의 주력 농사인 고추가 첫 수확된 후, 내가 본 고춧가루 색 중 제일 예쁜 빨강색으로 우리를 찾아왔을 때, 모임 회원들은 모두 5근, 10근, 30근을 제각각 주문했다. 유기농이라 좀 비쌌지만, 그리고 시골에 친척이 있어 고춧가루를 살 필요가 없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알기에 모두들 주문을 주저하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시장 방앗간에서 혹은 마트에서 산 중국산 고춧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던 때와는 맛과 빛깔이 다른 반찬을 밥상에 올릴 수 있었다. 작년에 먹다 남은 중국산 고춧가루는 맛과 빛깔의 차이를 확연히 알기에 아직까지 냉동실 깊숙이 박아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버려야 할 것 같다.

올봄 영월에서 고추 모종 심기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작년에 농사일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5월 초, 아이들 학교 노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독서모임 회원 가족들과 시간을 맞춰 금요일 저녁에 영월행

기차를 탔다. 영월은 단종의 슬픔이 서려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역에 내려서부터 전통적인 옛 향취가 풍겼고, 바로 옆에 5일장이 서는 전통시장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태형이네 집은 산꼭대기라 일반 승용차가 올라갈 수 없는 비포장 산길을 가야 했다. 그래서 영월역까지 마중 나온 태형이 아버지의 트럭 짐칸에 아이를 포함한 일행 20여 명이 다 같이 몸을 실었다. 어라연 다리를 넘어 트럭으로 20분 정도 산길을 올라갔다. 탈 때는 모두들 트럭 짐칸에 짐을 바깥쪽에 두고 일렬로 정리정돈을 하고 앉았지만 산비탈을 오를 때 놀이기구를 타는 스릴을 몇 번 맛본 뒤로 집에 도착하여 내릴 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짐이고 모두 섞여 있었다. 트럭을 타는 동안 아이들이 즐거워라 신기해라 하며 지르는 소리에 어른들도 체면 불구하고 동강 언저리에 냅다 소리를 질러댔다. 덩달아 즐거웠다. 한편으로 이 길을 서울 생활만 하던 5학년 태형이는 매일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니 아이의 등 · 하교 길의 고단함이 짐작이 되었다. 그러나 1년을 견뎌 낸 그 아이에게 서울 아이들보다 강인함은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

작은마차 동네에는 뜨문뜨문 세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태형이네는 좀 개조된 집이 살림집이었고 길 건너편에 옛날처럼 군불 때는 집이 손님들 차지였다. 우리가 온다고 미리 군불을 때놓은 주인장의 마음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날 밤은 저녁을 먹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침을 간단히 먹고 8명의 어른들은 어린애(5집이 갔는데 실제 노동력보다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2집은 아이가 우유를 먹거나 걸음을 잘 못 걷는 상태였음)를 볼 사람과 밭으로 나갈 사람을 구분하여 먼저 옷으로 농부티를 내보았다. 목에 건 수건과 챙모자, 긴팔 옷만도 더운데 뱀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던지라 바로 더워질 줄 아면서도 긴 장화를 신는 이도 있었다.

비닐하우스로 가보니 주인부부가 지성으로 키운 고추 모판이 어서 자기들

을 넓은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간택 날을 기다리듯이 얌전히 모여 있었다. 육묘 상자에 씨를 흩뿌려 파종한 뒤 정성껏 물주며 씨를 틔워 본 잎이 나온 후 15cm 정도 키우는데 80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 고추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뿌리가 다칠 새라 하나씩하나씩 애기처럼 다루며 옮긴 모판(계란 판 같은 비닐 포트로 한 판에 모를 42개씩 담았다)이 450개라는데 내 눈에는 끝이 없어 보였다. 가끔 동네 할머니 품앗이가 있었다지만 거의 부부의 노동력만을 의지하여 완성된 모판은 말로만 들어도 그동안의 노동이 훤히 보였다.

어제 밤에 우리가 앉았던 트럭 짐칸에 차곡차곡 50여 개의 모판을 실어 밭으로 갔다. 비탈진 산 하나가 통째로 다 밭인데 작년에 콩밭이었으나 밭의 질이나 수확량을 위해선 올해는 고추를 심는 등 번갈아 다른 농작물을 기르는 게 좋다고 했다. 포크레인으로 밭을 1차로 정리한 후 소를 빌려 소와 사람이 밭을 갈아 이랑, 고랑을 만든 후 이랑에 검은 비닐을 긴 줄로 씌었다고 한다. 아직도 밭농사에 소의 힘이 막강하게 필요하다는 게 신기했고, 잡초가 나오지 않게 검은 비닐을 덮는 게 알려진 지 몇 년 안 되는 방법이나 거의 모든 고추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또 신기했다. 그러고 보니 기차에서 바라본 봄의 들판은 온통 검은 비닐이 덮여 있었다. 검은 비닐은 농가의 일손을 덜어 주기는 하나 인위적으로 풀의 생장을 막는 것이기에 환경친화적이라 생각되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모종 심기는 그동안 영농책을 보고 나름대로 고안해 낸 태형이 아버지식 농사법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엔 이랑마다 덮인 검은 비닐 위에 찍새(태형이 아버지가 직접 만든 농기구로 비닐 이랑에 적당한 간격을 두며 구멍 뚫기가 편리하게 막대에 모종삽을 달고 막대 위에서 올리고 내리는 손잡이를 달아, 찍어서 구멍을 뚫는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우리가 지어낸 호칭)가 고추모가 심겨질 자리에 구멍을 낸다. 그러고 나면 주전자맨이 고추모가 병충해에 의한 내성을 강하게 하려고 일일이 염도를 맞춘 소금물을 주전

자로 담아 와 모종 심을 구멍에 붓는다. 태형이 아버지가 하나씩 가져다 주는 모판을 받아 기다리던 모종심기맨이 고추 모판 모를 하나씩 빼어서 구멍에 넣으면 본격적으로 아줌마들이 한 이랑씩 맡아 호미로 모종을 꼭꼭 누르며 흙을 덮었다. 철저한 분업이 이루어졌다. 그때도

"공기 구멍을 내고 고추대가 넘어지지 않게 처음엔 꼭 누르고 나중에는 살살 흙을 덮으세요."

라는 주인장의 까다로운 주문에

"다른 농가도 모두 이렇게 힘들게 모를 심나요?"

라고 물으니 제초제를 치지 않고 유기농 농사를 짓겠다는 주인장의 포부로 인한 번거로움이란다. 곱빼기로 힘든 노동량을 투덜댔다. 그러나 농사일을 도와주러 온 우리는 주인장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나중엔 처음 호미를 잡은 서울 아낙의 일손에서도 더 효과적인 모종 심기 아이디어가 나와 인간의 머리가 좋다는 감탄사를 서로에게 연발했다. 도시 사람이 귀농을 한다면 새로운 영농법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또 다른 생존이란 생각이 스쳤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좀 쉬고 싶었으나 오랜 만에 많아진 일손으로 일의 진척도를 가늠하는 주인장 앞에서 감히 쉬겠다는 소리를 못하고 알아서 호미를 챙겨 들고 밭으로 갔다. 덥지만 일은 계속 되었다. 길가의 밭은 모종심기가 끝나고, 다음 트럭의 모판이 도착하자 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 쪽으로 모판을 옮겨야 했다. 놀고 있던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한 명씩 밭고랑마다 일렬로 서게 한 후 트럭에서 밭으로 모판을 한 명씩 건네주며 옮겨서 모종심기가 아직 안 된 이랑 여기저기에 던져 두었다. 집 근처에서만 맴돌던 아이들의 고사리 손이 다가오자 일은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모판 옮기기가 끝나자 주전자맨과 모종심기맨도 아이들이 하겠다고 나선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겠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못하겠다고 한 놈, 두 놈 빠지더니 나중엔

세 살짜리 여자아이만 엄마 옆에서 자기가 심은 모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고랑에 일렬로 앉아 아이스크림 하나로 간식을 해결하고는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까지도 우리는 오전에 한 일을 한 치도 다름없이 반복했다. 어둑어둑해져서야 우리는 주인장의 환해진 얼굴을 쳐다보고서 산을 내려왔다. 힘들여 일한 후 이어진 맛있는 저녁과 좁쌀 막걸리와 걸쭉한 농담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군침이 돌고 입가에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다음날 오전 일만 하고 오후에 예약된 기차 시간에 맞춰 나오느라 산꼭대기 반나절 분량을 다 못해 주고 나오려니 마음이 무거웠다.

'주인 내외가 둘이서 하려면 이틀은 꼬박 걸릴 텐데… .'

모판 하나를 얻어서 몇 회원이 나누어 받아 든 고추모를 혹여 목이라도 부러질까 조심하며 집에 가져왔다. 고추모 12개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심었다. 모종을 심기 전에 소금물도 붓는 등 영월 방법 그대로 했고 정말 몇 달 후 파란 풋고추를 우린 맛볼 수 있었다. 뿌듯했다. 아이들의 함성도 같이하면서… .

그로부터 3개월 후, 8월 초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휴가 계획을 짜다가 독서모임 회원들과 다시 영월에 갈 것을 결정하고 휴가철이라 미리 기차표를 예약했다. 봄에 같이 갔던 사람들과 구성원은 다르나 그래도 나는 내 아이들과 언제나 같이하는 곳이라 즐기는 휴가가 아닌 느끼는 휴가를 실천할 수 있었다. 엄마, 아빠가 다 도시 사람이라 시골 정서를 마땅히 경험하지 못하던 아이들에게는 여행객으로 보는 시골이 아닌 살면서 느끼는 시골을 이렇게나마 경험하게 할 수 있어서 귀농한 영월 부부에게 고마웠다.

이번에는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무농약 농사를 짓는 태형이네 고추 농사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잡초 뽑기를 해야 했다. 전날 밤 늦게 도착한 피로도

잊은 채, 아침 6시에 기상이다. 봄과는 달리 9시만 되어도 뜨겁게 내리쬐는 해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단다. 태형이네 밭으로 향하며 살펴본 주위 고추 밭들은 잡초가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고추모만 보여

"저 집들은 언제 다 저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마쳤어요?"

라고 물으니 태형이 엄마가 조용히

"제초제의 위력이지요!"

라고 대답한다. 5월에 모를 심은 후 남들은 3~4번의 제초제를 뿌렸다고 한다. 그곳에서 나온 고추는 모양도 예쁘다고 한다. 상품의 가치는 두고 봐야 하지만 도시 소비자들은 그런 걸 알 턱이 없단다. 그동안 먹은 고춧가루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약이 오른다. 작년에 시세보다 좀 비싸다고 여기며 산 영월 고춧가루가 사실은 내 몸에 효자였는데 그걸 반 년이 다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다니…. 인정상 내가 사준 게 아니라 영월 부부가 우리 식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었음에 또 한 번 고마울 따름이다.

5월에 심은 고추모를 8월에 보니 고추보다 이랑, 고랑에 잡초가 더 많아 잡초를 뽑느니 차라리 고추모를 뽑는 것이 빠를 듯했다. 고추 이랑에 한 줄씩 무릎 꿇고 앉아 호미로 풀을 캐어내려니 일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 두 손으로 힘껏 풀을 잡아당겼다. 손목이 삐걱거리고 어깨가 욱신거렸다. 풀과 힘겨루기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다시 바로 앉으며 주인장이 해준 밥 먹은 것이 미안하고, 3개월간 농사에 보태 준 것이 없어 미안하여 죽기 살기로 다시 풀을 뽑았다. 이마에 등에 흐른 땀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닦으려고 일어서서 뒤돌아보니 고개 꺾인 잡초더미 사이로 고추모가 씽긋 웃어 주는 듯해 눈에 흐른 땀을 닦아내는 기분이 좋아졌다. 한 이랑, 두 이랑, 세 이랑째, 힘이 빠지고 다시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해가 중천이었다. 때마침 아침밥 먹으라고 알리러 온 딸아이가 왜 그리 반갑던지, 뜨거운 해를 핑계로 낮에는 낮잠도 자고 쉴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그때가 오전 9시였다. 방학을 한 도시에서는 늦잠 자고 일어날 시간이었는데 농촌에서는 벌써 이렇게 많은 일이 진행되었다. 도시에서 매일 맞이하는 더부룩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또 한 술 떠넣는 돼지 같은 기분이었으나 여기서는 짧은 노동 끝에 정말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양 느껴졌다. 같이 간 모임의 회원들도 힘들어 말은 안했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음을 그들의 밥 먹는 속도에서 밥 먹은 후 뒤처리에서 알 수 있었다.

낮에는 어라연 다리 밑에 가서 동강에 몸을 빠뜨릴 수 있었다. 아이들은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어른이고 또 아줌마 체면에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돗자리에 앉아

"어라연이 임금님과 관련된 강이지요?"

라고 내가 짐짓 아는 척을 하며 물으니

"물고기가 빛나는 연못이래서 그런 지명이 붙여진 겁니다."

라고 영월 아줌마가 가감 없이 알려주어 모두 까르르 웃고 말았다. 그때 같이 간 아빠들 중에서 누군가를 시작으로 7명 아줌마들을 모두 다 물에 던지기를 성공시켜 준 덕에 올 여름에는 비명을 지르며 물놀이란 걸 해볼 수 있었다. 어라연 다리 부근에는 동강 래프팅 가게가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작은마차 동네로 오가는 길에도 우리만 농사 트럭이지 차 길이보다 긴 보트를 머리에 인 래프팅 차량 행렬이 줄지어 이어졌다. 늘 보트를 타 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보다 더 멋진 동강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다.

해가 질 무렵부터 다시 저녁 김매기를 하고, 밤에 식사 후에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 다음날 대부분 기상을 하지 못해서 아침 농사일은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영월의 고추밭은 몇 팀의 도시 친구들이 휴가차 왕림한 후에야 고추밭의 원래 모습으로 단장을 마쳤다고 한다.

"도와준 손길, 두고 간 마음 모두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영월 부부의 인사말은 정말 빈말이 아님이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가 다녀간 후,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모임 까페에서 주인 내외는 이런 글을 남겼다.

"귀농하면서 제대로 심어 튼실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일이 힘들 때, 가족과 소통이 안 될 때, 이웃과 불협화음을 보일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져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바라보며 오는 충일감, 가끔 찾아오는 도시 지인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할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자연 앞에 속이지 않는 농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올 가을 영월에서 고추 따기가 한 번 더 우리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 늦가을에 유기농 태양초의 예쁜 빛깔 고춧가루를 정말 자식처럼 사랑스럽게 안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빛깔은 작년과 또 다른 나의 땀이 담긴 빛깔이기에….

그러고 나면 겨울방학에는 영월 산속에서, 동강에서 놀기만 하다가 올 수 있을까?

사과 과수원

고등부

이 지 원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야 이제 가을이구나~!' 차창 밖으로 느껴지는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다. 이제야 푸르스름해지는 하늘이 아침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지금 아빠와 증평 할아버지댁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이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가꾸시던 사과 과수원을 돌보러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들리는 곳이다. 할아버지댁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너무나 그대로여서 항상 눈물이 고인다. 아직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다. 항상 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맞이하던 진돌이와 그 다음으로 한껏 꼬부라진 허리를 하시고도 나를 껴안아주시려 뛰어오시던 할머니…. 집에 들어서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집 앞을 나서면 과수원에 다녀오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빼빼 마르셔서 힘이 하나도 없으실 것만 같은 팔을 가지고서도 항상 내게 한 포대의 사과를 따서 안겨주시던 할아버지,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을 알았다면 내가 먼저 힘껏 안아 드렸을 것을 후회하게 된다. 눈앞이 뿌여져서 서둘러 과수원으로 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급히 쫓았다.

할아버지의 사과 과수원은 나이가 많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부터 키우고 길러 오신, 할아버지의 모든 것이 배어 있는 나무들이어서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수십 그루의 키 작은 나무, 하지만 그만큼 기둥이 두꺼워 튼튼한 사과나무들은 언제나 그렇듯 할아버지의 웃음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으~챠! 허어 이놈들 매달린 것 봐라. 이지원! 오늘도 시합하는 거다? 아빤 여

기서부터 시작한다! 시이~작!" 어렸을 때, 아마 10살 때쯤이었던 것 같다. 사과를 따기 시작했던 것이. 어린 마음에 친척들과 차라리 나무 사이에서 놀고 싶었던 나는 자주 사과를 따다가도 도망가고 칭얼거렸다. 그때 생긴 것이 이 내기였다. 할아버지께서 자꾸 반복되는 사과 따기에 지친 나에게 " 지원아. 이 할배랑 느이 아빠랑 내기할까? 할아버진 여기서 시작하고 지원이는 저기 작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저기 해가 질 때까지 누가 많이 따는지. 지원이가 이기면, 할아버지가 지원이 하고 싶은 걸 들어줄게. 할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시이~작!"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서늘한 새벽부터 사과나무의 이파리가 황금색으로 물들어 갈 때까지. 항상 내기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나는 그 날부터 정말 열심히 사과를 땄다. 어린 마음에 급하기만 했던 내가 딴 사과는 항상 멍이 들고 안 익은 것과 익은 것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었지만, 해질녘이면 비어 있던 사과 박스를 제일 많이 채웠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시작된 시합이었다. 그리고 아빠와 나는 8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다. 선수도 두 명뿐이고, 땀이 나서 폭 젖은 수건을 말없이 갈아 주는 할머니도 없지만, 사과를 다 따면 항상 진수성찬이던 할머니의 저녁밥도 없지만 나와 아빠는 아직까지도 묵묵히 시합을 한다. 옛날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했던, 할아버지를 닮은 키 작은 사과나무에 다가서면, 그리고 그 나무에 항상 힘이 들 때 기댈 때마다 진갈색 거친 나무에서 할아버지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지원아, 사람의 마음이 흔들임이 없이 튼튼해야 하듯이 사과나무도 깊게깊게 흔들임이 없게 토심이 깊어야 된단다. 우리 지원이도 사과나무처럼 깊은 마음을 가졌잖니?" 사과를 딸 때도 할아버지의 말씀이 사과에서 흘러나온다. "지원아! 좋은 사과는 껍질의 색깔이 고르게 붉은 것이 좋은 것이란다. 마음의 색깔이 곱게 붉은 사람의 가슴이 따뜻한 것과 같이, 지원아, 네가 사과를 딸 때는 나무의 마음을 딴다고 생각하거라. 빠알갛고 예쁜, 나무의 마음을 딴다고 생각하거라."

사과를 딸 때는 두 손으로 감싸듯이, 붉고 예쁜 마음을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 란 마음으로. 꼭지는 1.5센티미터가 남을 정도로 밑동이 다치지 않게 '똑' 소리가 나도록. 할아버지는 벌레 먹은 사과나 병에 걸린 사과들을 '아픈 사과' 라고 표현하셨다. 그리고 그런 사과들을 항상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아프지 않은 부분' 을, '사과가 지킨 마지막 마음' 을 소중히 깎아서 나의 마음에 넣어 주셨다. 할아버지는 나무에 농약을 절대로 뿌리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주변의 다른 과수원보다 벌레 먹은 사과가아니, '아픈 사과' 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항상 할아버지의 사과는 다른 사과들보다 크고 달고 맛있었다. 그것 보고 많은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사과의 마음을 읽는 분이라고 하셨다. 그토록 할아버지는 사과의 마음을 읽는 분이라고 하셨다. 그토록 할아버지는 사과나무를, 그의 과수원을 사랑하셨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와 별반 다름이 없이 열린 '마음' 들은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것을 모르는 듯하다. 지금은 혼자 걷지만 나는 항상 할아버지와 과수원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나뭇잎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을 언제나처럼 걷고 있노라면, 나무들 사이사이에서 할아버지가 숨어 계시는 듯,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원아, 이리와 보렴. 나무가 다쳤구나. 상처가 터졌어. 지워아, 잘 보렴. 네가 다쳐서 피가 나는 것처럼 나무도 다치면 피를 흘린단다. 그러면 네 아픈 데를 치료해 주는 것처럼 이 안이 갈색으로 변한 곳을 깎아내고 사람의 연고 대신 나무의 연고인 이 하얀색 가루를 발라 주렴." 지금에서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가루가 소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다칠까봐 주머니에 연고를 지니고 다니셨던 할아버지처럼 나도 주머니에 항상 소다가 들어 있다. 이 밖에도 잎사귀가 점박이로 변했을 때는 무엇을, 갈색으로 변할 때는 어떤 것을, 할아버지는 사과나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사과나무를 평생 바라보시고 사과를 나무의 마음이라 일러주셨던 할아버지. 나무 밑의 땅은 그를 자

라게 해주고 받혀 주는, 그리고 그의 뿌리를 끝없이 받아들여 주는 가슴 넓은 어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할아버지는 나에게 시인이셨다.

나는 박스에 사과 하나하나를 쌓을 때 사과가 다칠까봐 가슴을 졸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할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의 그 자체를 빼어 닮은 과수원을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농촌을 사랑한다. 이곳을 사랑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는 내게 농심을 가르쳐 주셨다. 모든 자연을 키우고 기르는 농부의 진실된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 10살, 맨 처음에 시합을 시작했을 때 딴 사과의 양을, 난 그 후로 한 번도 채운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항상 아빠께 지는 신세다. "야아, 넌 하루 종일 뭐했나? 아빠 봐라. 몇 박스인지 세볼 수나 있냐? 흐하하 내가 또 이겼구나!" 하지만 난 하나도 부럽지 않다. 가지런히 내려놓은 내 사과들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할아버지의 사과들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 잎사귀에 금빛을 내리쬐는 하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서 좋다. 그리고 그 따스함이 할머니의 품을 생각나게 해서 가슴이 찡하도록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은 과수원을 내려오면서 까만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낮의 모든 일들이 다 꿈같이 여겨진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언제 다시 이곳을 올 날을 세어 본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의 웃음을 다시 볼 날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돌아오는 흔들리는 차 속에서 항상 꿈의 끝자락에서 과수원의 내음을 맡는다.

서울아이, 자연을 선물받다 고등부

박 지 은 포천 관인고등학교 1학년

"아빠, 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서울에서만 살아 왔던 나는 이제부터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 아버지께 조심스레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나는 그다지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던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철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서울과 다른 풍경들에 취해, 이곳의 지리도 다 익히지 않은 채로 오빠와 함께 물가로 달려갔으니 말이다. 전학 수속을 밟기 전 동네 친구들 몇 명을 알고 사귀긴 하였지만, 어색한 만남에 그저 인사 정도만 할 뿐이었다. 특별한 친구가 없었던 나는 혼자 공기놀이를 하거나 오빠와의 베개 싸움이 전부인, 지루한 생활로 시골 생활을 시작했다.

봄방학이 끝나고 초등학교 3학년으로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던 날. 전학을 온 나는 2층밖에 없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아버지께 땡깡을 부리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오빠와만 놀러 다니던 내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과학 도서에서만 봐 왔던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면서, 나는 얇은 실처럼 생긴 풀에서 나는 줄 알았던 실잠자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과, 귤과

사과는 나무에서 난다는 것,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 그리고 논과 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장 신기해 했었던 것은 논에서의 일들이었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논으로 친구와 함께 달려가면 아버지와 친구의 부모님들은 노란색 장화를 고동색으로 물들인 채 우리를 반겨주셨다. 어른들은 거머리로 나를 놀래키기도 하셨고, 논으로 들어갈 수 있게 남은 장화를 내주시기도 하셨다. 논에서의 일과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항상 아버지의 손을 잡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논도 만들어 달라며 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바로 철없던, 어린 나.

시골에서 산 지 꽤 시간이 흘렀을 때, 이곳에 거의 적응을 하였다고 믿었을 때, 새삼스레 다시 도시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패스트푸드점이 없는 것과, 초등학교 3학년이 걷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슈퍼, 바쁜 농사일에 전처럼 나를 잘 챙겨주시지 않는 아버지, 심지어 학교 버스를 타러 현관문을 열면 보이는 투명한 비닐하우스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결국 난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버지께 도시로 돌아가자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내 침대로 옅은 노란색 빛이 들어왔다. 눈을 떴을 때 방은 하얗고 밝은 느낌이 났다. 혹시 하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연 나는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밤새 꿈을 꾸는 사이, 눈이 우리 동네에 도착했던 것이다. 시골에서 처음 맞는 눈은,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싹 잊게 하였다. 5살 꼬맹이처럼 좋아하는 나를 보고 오빠는 눈사람을 만들자며 신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렇게 우리는 둥글둥글 눈을 뭉쳐 두 개의 눈사람을 만들었다. 모자 대신 망가진 우산을 꽂고, 코에는 유리병을 꽂았으며, 손은 당연히 나뭇가지였다. 완성된 눈사람을 보며 뿌듯해 하던 우리는 집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물에 꽁꽁 얼어버린 손발을 녹인 뒤, 점심을

먹었다. 누가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녹아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창밖으로 틈틈이 눈사람들을 내다보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나는 서랍을 열어 두꺼운 양말을 골라 겹겹이 신었다. 눈사람을 만들 때 빨갛게 차가워진 손발을 생각하면 세 겹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다. 잠바를 입을 때쯤 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다급해진 나는 옷걸이에 걸쳐 놓은 검정색 목도리를 대충 어깨에 얹은 후, 집밖의 하우스로 향했다. 하우스는 우리 아버지의 작은 작업실이다. 아버지의 작업실에는 오이를 담으려 준비해 두었던 상자와 농기구들이 있었고, 내가 찾는 비료 포대도 있었다. 난 아버지께 비료 포대를 가져가겠다고 허락을 받은 후, 잘 접어져 있는 비료 포대 중 가장 큰 것을 찾아내어 친구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물론 눈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빼먹지 않았다.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관제탑에 있었다. 나보다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해 벙어리장갑을 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였다. 관제탑은 적당히 경사가 지고 높았으므로 아이들의 눈썰매장으로 딱 알맞은 장소였다. 이미 잘 닦여져 있는 눈 미끄럼틀에 뿌듯함을 느낀 나는 서둘러 관제탑 꼭대기로 뛰어올라갔다, 처음 타보는 비료 포대 눈썰매에 비료 포대가 차가운 줄도 모르고 앉아 포대 썰매를 탔다. 하지만 얼마 후 난 발을 질질 끌며 내려가던 미끄럼틀을 멈춰야 했다. 울퉁불퉁한 흙과 눈의 차가움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던 것이다. 친구들은 엉덩이가 차갑고 아프다며 툴툴거리는 내 모습에 깔깔 웃으며 바보냐며 놀려 댔다. 친구들의 포대 썰매를 관찰한 결과 볏짚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볏짚은 어디서 났냐는 내 질문에 친구들은 관제탑 아랫집 옆에 위치한 검은색 하우스에서 꺼내왔다고 얘기했다. 난 재빨리 검은색 하우스로 내려가 볏짚을 포대 썰매에 꽉꽉 채어 넣은 후, 다시 포대 썰매를 출발시켰다. 썰매를 타다가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눈 속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르기도 하면서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

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검은 하우스의 주인이시자 포대 썰매 안, 볏짚의 주인이신 아주머니께서 시끄럽다며 우릴 조용히 시키러 나오셨다가 포대 썰매 안의 볏짚을 발견하신 것이다. 결국 우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볏짚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후, 관제탑에서의 하루를 마감하였다. 그 후 우리는 관제탑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손발을 녹인 후, 눈에 젖은 장갑과 목도리를 널었다. 그리곤 두꺼운 이불 속으로 꼭꼭 숨어들어가 장갑과 목도리가 마르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구마와 감자 구워줄 테니 천천히 먹고 가렴." 아버지의 말씀에 신이 난 우리는 한술 더 떠, 함께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부탁을 드렸다. 아버지는 유쾌하게 허락해 주셨고,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전화하여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버지는 마당 한 켠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고 땔감에 불을 붙여 감자와 고구마를 구우셨다. 아직 마르지 않은 장갑과 목도리 때문에 조금 춥긴 했지만 따뜻한 불을 쬐며, 감자와 고구마를 이리저리 손안에서 굴리며 추위를 잊어 갔다. 파티까지 끝낸 우리는 오빠와 내가 만든 눈사람에 관심을 보이다가 곧 방안으로 들어와 다시 이불 속에 몸을 감췄다.

그 이후 이곳의 겨울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 봄도, 여름도, 가을도, 언제나 기다려지는 계절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이곳에서의 즐거움을 찾아갔고 아직까지 논과 밭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도시에서의 생활에선 이런 즐거움은 없었던 것 같다. 눈사람의 크기는 언제나 무릎 정도에 못 미쳤고, 고구마와 감자를 구울 땔감도 없었으며, 장소도 없었다. 그곳에선 그랬다. 실잠자리가 풀에서 나는 줄 알고, 올챙이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귤은 땅에서 나는 줄만 알았었다. 지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곳으로 이사오지 않았더라면

개구리를 구경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진짜 눈이 아닌 인공눈에서 눈썰매를 타고 있었을 것이며, 푹신한 비료 포대가 아닌 딱딱한 썰매를 타고 있을 것이다. 잠잘 때 들리는 새 소리도, 여름의 매미 소리도 듣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곳은 지금도 슈퍼가 멀다. 패스트푸드점도 없으며, 버스는 하루에 5대 정도가 고작이다. 학교도 작으며, 영화관 같은 17세 소녀가 바라는 문화 시설도 없다. 그렇지만 이곳에선 이곳 나름대로의 소소한 행복이 있다. 서울만큼 편리하고 세련된 곳은 아니지만, 인공적이지 않은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맑은 공기와 하늘 가득 총총히 떠 있는 별과 자연의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처음으로 시골을 방문한 서울아이에게 충분히 감동적인 풍경을 선물해 주었다. 다름 아닌 나에게.

"깻잎 한 장, 땀 한방울"

중등부

윤 여 빈 수원 조원중학교 1학년

8월 14일, 이른 아침부터 우리 가족은 시골에 갈 준비를 했다.

논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할머니댁에 가서 요즘 한창 바쁜 시골 농사일을 돕기 위함이다.

날씨도 덥고 귀찮은 마음에 가기가 싫었지만, 아빠가 이번 기회에 농사일도 해보고 농촌의 소중함도 느껴보라고 하셔서 가기로 했다.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느라 아침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가는 도중 휴게소에 들러 아침을 먹었다. 휴게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확 덥쳤다. 차안에서는 에어컨을 틀며 갔기 때문에 별로 더운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이 더위에 논산에 가서 농사일을 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두 시간을 달려 할머니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더운 날씨인데도 달려나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집안에 들어서서 좀 쉬려는 찰나에 농사일은 해가 지면 못한다며 서둘러 나가자고 할머니는 나를 재촉하셨다.

깻잎 밭은 집 뒤에 있었다. 매년 봐오던 깻잎 밭인데도 오늘 내가 일할 곳이라고 생각하니 무척 크게 느껴졌다. 어찌할 바를 몰라 멀뚱멀뚱 서 있는 나를 뒤로 한 채 어른들은 척척 따며 앞으로 나아가셨다. 어른들의 손놀림을 곁눈질로 보고 나도 부지런히 따기 시작했다.

깻잎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큰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 훨씬 많았다. 할머니께 여쭤보니 올 여름엔 비가 오질 않아 가물어서 깻잎이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하셨다. 나는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그러시

냐?"고 했더니 비가 와야 될 시기에 안 오고 쓸데없는 날에만 와서 그랬다고 하셨다.

날이 얼마나 더운지 깻잎을 한 장 딸 때마다 땀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 듯했다. 깻잎을 따면 딸수록 너무 더워서 헉헉! 하고 숨을 쉬자 할머니께서는 "농부들은 그 일을 매일 하는데 요거 가지고 힘들어 하면 쓰겄어?" 라며 나를 놀리셨다. 나는 한 시간도 채 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 일을 매일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드실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동시에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었던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죄송한 마음도 잠시, 내가 땀도 많이 나고 덥다고 불평하자 아빠는 땀을 흘려야 몸 안의 노폐물이 땀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라고 하셨다. 그래도 내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자 아빠는 세 자루 정도 땄으니 노성천에 가자고 하셨다.

나는 신이 나서 아빠와 함께 동네 앞의 노성천으로 나갔다. 깨끗한 노성천에서 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주변에 풀도 무성히 자라 있고 물도 별로 없었다. 실망한 나를 보고 아빠는 예전에는 그곳이 굉장히 깨끗했었다고 하셨다. 아빠가 나만 했을 때에는 노성천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멱도 감았다고 했다. 그렇게 깨끗했던 물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더러워진 데에는 환경오염의 탓도 있겠지만, 농촌에 아이들이 없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일 것이다.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셔서 너무 조용한 동네를 보고 우리의 농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농촌을 회피한다. 지금 농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의 농촌은 누가 지킬 것인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는 늙으셔서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어서 얼마 안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며 걱정하셨다. 그나마 농기계가 있어 아직은 힘들어도 참고 농사를 짓지만, 앞으로 누

가 그 농사를 이어받아 지을 것인가? 또한 자신의 몸보다도 FTA협상으로 쌀시장 개방하게 되면 들어올 외국의 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다.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는 농촌의 겉과는 달리 그 속은 여전히 장마철이었다.

점심을 먹고는 할머니, 엄마랑 둥글게 앉아 마늘을 깠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 콧물 가릴 것 없이 다 나왔다. 마늘을 까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엄마도 집에서 마늘을 종종 까시는데 난 그때마다 도와주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마늘을 까 보니까 그동안 엄마의 수고가 느껴졌다. 다음부터는 나도 같이 까드려야지 하고 다짐했다.

마늘을 까다 음메~하는 소 울음 소리가 들려와서 집 뒤 외양간에 가서 소를 구경하였다. 예전에 소는 집안의 큰 재산이며 일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기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소가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소는 모두 4마리였는데 3마리는 앞에 있고 1마리는 뒤에 따로 마련된 곳에 있었다. 크기로 보건데 앞의 3마리는 아빠 소, 엄마 소, 아기 소인 것 같았다. 소들은 커다란 눈을 순진하게 껌뻑껌뻑거리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주변에 있는 여물을 조금 손으로 집어서 한 마리씩 먹여주었다. 송아지가 귀엽게 생겨서 만져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물로 고개를 내밀도록 유인한 다음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물을 줄 수 있는 대로 잔뜩 줘서 소들에게 먹인 다음 집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들어올 때 소들은 여물이 더 먹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 새 나에게 정이 든 건지, 그냥 한 번 울어본 건지 모르겠지만 '음 메~' 하고 울었다. 할머니는 그걸 보고 웃으시며 "여빈이가 가니까 슬퍼서 저러나 보다" 고 하셨다.

저녁때가 되자 할머니께서 밖에 있는 솥단지에 장작불을 지피셨다.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서 불 때는 것을 보고 있으니 보이스카웃에서 야영할 때 모닥불을 펴놓고 캠프 파이어하던 생각도 나고 신기했

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물이 끓자 할머니는 솥단지에 닭을 두 마리 넣으셨는데 굉장히 큰 닭이었다. 얼마 후 할머니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닭을 가져오셨다. 닭의 다리는 굉장히 컸다. 할머니가 이 닭은 토종닭이라서 크고 살도 많은 것이라고 하셨다. 고기가 약간 질겼지만 푸짐해서 좋았다. 고기를 다 먹은 뒤에는 닭국물에 찰밥을 말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국물을 다 먹고 이번에는 김에 찰밥을 싸서 먹었는데 그 또한 일품이었다. 찰밥은 찹쌀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콩, 팥 등을 넣고 짓는데 굉장히 맛있다.

밥을 다 먹은 뒤에 대전에 계신 친할머니댁을 들러가야 한다면서 아빠는 서둘렀다. 돌아올 때 할머니께서 아까 따놓은 깻잎과 양파, 고구마 순, 마늘 등을 푸짐하게 싸 주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며 딴 깻잎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골에 한 번 다녀올 때마다 할머니가 이것저것 챙겨 주시는 채소와 야채들 덕분에 며칠간 우리 집 식탁은 풍성해진다.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가 주신 것들을 먹었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깻잎을 직접 따보니 먹는 게 아까워지면서 더욱 소중히 느껴졌다.

집 근처 슈퍼에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깻잎, 마늘, 파, 쌀 등 이 모든 것을 우리 할머니 같은 농부들이 힘겹게 땀 흘려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먹기 싫다고 무심코 버렸던 양파, 파, 마늘 등 많은 야채들이 머리를 스친다. 오늘 내가 직접 이 일을 체험해 보면서 농사짓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정성을 기울여야만 되는 건지 알게 되었다. "모두 거짓말을 해도 땅만큼은 속이지 않는다." 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땅은 정직해서 우리의 노력과 정성만큼 다시 땅은 우리에게 돌려준다. 땅을 파면 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지만 양식이 나온다. 소중한 땅을 생각하며 지금도 뙤약볕에 얼굴을 까맣게 그을려 가며 농사짓는 농부 아저씨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또 다른 내 친구

중등부

김 나 연 대전 정림중학교 2학년

한참 심심하던 참에 집에 묵혀 있는 책장의 책을 하나 뽑아 읽기로 결심하였다. 그 중에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라는 책을 뽑게 되었다. 예전에 느낌표에서 선정했던 도서라 읽으면 더욱 느낌이 새롭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첫 장을 읽기 시작하고 금방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저자 자신이 주로 자기의 농사짓는 이야기와 나무 키우는 재미에 빠진 이야기, 흙, 나무숲을 등진 도시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존경하는 인물 이야기,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등이 실려 있었다. 책을 읽다보니 문득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로하시지만 지금도 농사를 손수 지으신다. 경기도 파주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대전에서는 멀지만 못자리, 모내기, 벼베기 할 적엔 우리 가족은 모두 할아버지댁에 간다. 특별히 우리가 논에 나가 일을 할 줄은 몰라도 엄마는 할아버지가 농사짓는 모습을 늘 보고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매년 추수 때가 되면 할아버지댁으로 향한다.

작년 가을에도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댁으로 갔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임진각이 가까이 있어 동네 입구엔 장어집들이 즐비하고 관광객들의 차들이 즐비하지만 그 뒤편으로 들어서면 코 끝에 풍겨오는 소똥 거름과 짙은 흙냄새가 진정 농촌임을 느끼게 한다. 증조할머니댁, 작은 할아버지댁, 종가댁, 동네 대부분이 친척이라 모두 마주치는 분들마다 우리를 반갑게 대

하신다. 모두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라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엄마는 이곳은 다른 농촌에 비해선 젊은이가 많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밭과 논두렁에 많은 콩을 심으셨는데 수확을 한다고 우리 가족과 세 분의 작은아버지까지 모두 모였다. 아침을 먹고 일찍 콩 수확을 시작했다. 한 10분이 채 지났을까 온몸에서 열기와 함께 비를 뿌리듯 땀이 흘러내렸다. 어른들은 낫으로 콩을 베고 우리는 이미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베어 놓으신 콩을 차 있는 곳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 집으로 가져가 콩을 털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우리들 중 몇 명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콩을 주웠다. 콩깍지가 말라서 터져 나온 것들이다. 일 년 내내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농사지은 것들이라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줍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마에선 땀이 비 오듯 했다. 그리고 마음과는 달리 몸은 너무 덥고 힘들어 꾀가 나기 시작했다. 허리를 펴고 옆을 보니까 어른들께서는 여전히 콩을 털고 계셨다. 머쓱해진 나도 다시 콩을 털기 시작했다.

콩을 털면서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봄에 콩을 심고 여름 햇볕 속에서 콩이 자라면 오늘처럼 콩을 낫으로 베어 햇볕에 말리고 터질 듯 콩 알맹이가 보일 때쯤이면 땅에 비닐을 깔고 도리깨로 콩깍지를 터트려 콩을 수확한단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두부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열심히 콩을 털고 있는데 엄마와 작은엄마들이 밭둑으로 점심을 차로 실어오셨다. 땀을 흘리고 난 뒤 상쾌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들판에서 먹는 밥맛은 언제 먹어도 세상 최고의 맛이다. 커다란 양푼에 큰 밥솥 가득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나는 밥에 열무김치, 오이지무침, 감자볶음 가득 넣고 참기름 한 숟갈, 마지막으로 고추장까지 넣은 열무비빔밥은 꿀맛이었고, 친척들과 함께 흙냄새 나는 손으로 동그랗게 앉아 한 숟가락씩 퍼 먹는 맛이 정겨움을 한층 더해 주었다.

봄에는 모내기, 가을에는 추수로 우리 가족은 자주 할아버지댁에 다녀온다. 어릴 적에는 친척들과 노느라고 농사의 어려움과 땀 흘린 후의 보람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 농촌은 나에게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정겨움과 생활의 교훈도 주고 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농촌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주말농장을 통해서 농촌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가족이 주말농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농장에 가면 땅콩도 있고 감자도 있었다. 하지만 난 매주 일요일마다 내가 좋아하는 TV를 보지 못하고 가서 땡볕에 돌 고르고 그 수많은 잡초를 뽑는 게 매우 싫었다. 그래서 가는 날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느라 바빴다. 하지만 내가 그곳으로 발을 옮기는 이유가 하나 있었다. 오직 주말농장 옆에서 가스버너로 라면 끓여서 허겁지겁 먹던 것과 엄마가 우리 더운 데서 타이르실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먹는 것이었다. 주말농장이 마음에 들고 일요일이 기다려진 것은 돌 줍고 땅 갈고 잡초 뽑는 일이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가 갈 때마다 자라 있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땅은 속이지 않는다고 농부가 정성을 드리는 만큼 식물이 자란다고 하셨다. 그렇게 내 손으로 얻은 땅콩을 볶아 멸치와도 먹는데,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다. 또 난 감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농사지은 감자는 평범한 감자와는 다른 맛이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일이 힘들었지만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농부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농촌의 어려움을 배우고 정겨움도 배워서 좋았고, 이런 기회를 언제까지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귀농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TV에서 보면 도시의 바쁜 생활을 떠나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연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의 아토피나 천식도 나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귀농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저 농사가 이상으로만 생각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면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크게 부딪히게 된다고 했다. 도시보다 불편한 여러 가지 시설들, 교육 환경들로 인해 아직도 귀농하는 사람보다 옛날에 도시로 떠난 사람이 몇 배나 더 많다.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과 모습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가 아닌 우리 농산물을 열심히 먹고,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끔이라도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농촌의 친구가 되어야겠다.

여 백

동 상
반딧불이상

여 백

농촌은 우리의 심장

대학 · 일반부

박 흥 모 경기 여주군

Ⅰ. 내 인생의 철학이 깃든 농촌

나는 원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농촌의 일손을 돕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큰 형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였을 것이다. 부모님이 동시에 병상에 들게 되어 원래 빈농인데다가 엎친데 덥친 격이 되었다. 그때부터 형은 학교에 가는 날보다 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형의 체구에 비해 삽이 너무 길어서 자루 중간을 잘라 내고 다시 만들어서 농사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형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만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친척집 야산을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부모님 간병에다 밥을 손수 해 먹으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하였다. 한 겨울에도 윗도리를 벗어 던지고 일을 할 때면 등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특히 내가 가정 형편상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갈 때가 많이 생각난다. 우리 반 아이들 중 나만 중학교를 가지 못하게 될 때 서러워 울기도 많이 울었던 졸업식, 졸업 후 형이 하던 농사일을 내가 물려받고 형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으로 갔다.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나에게 "중학교는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눈물로써 간곡히 부탁드려 나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꿈에도 그리던 중학교를 보내주었다. 그때

는 잘 몰랐지만 형이 학벌 때문에 얼마나 설움을 당했는지 짐작을 하면 가슴이 쓰려 온다. 이렇게 늦깎이 학생이 되었지만 농사일은 나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이다 보니 다른 학생보다 더 열심히 하였던 것 같다.

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잘 봤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여느 날처럼 동생과 소죽을 끓이기 위해 준비하다가 그 위험한 작두에 손을 넣고 말았다. 그 일 이후로 나의 성격은 소침해지고 심지어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매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형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공부를 시켜 주려고 하는데 만약 나 혼자 세상을 등지면 얼마나 원망할까, 그리고 가족들이 동네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짓누르고 승리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하게 손가락을 다친 사람들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보이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도 비록 오른 손은 농사일로 생긴 계급장인 집게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 살아가는 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농사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Ⅱ. 끊임없는 노력의 선물

그렇게 중 3년 동안은 솔직히 공부하는 시간보다 농사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시기였다. 심지어 추수철이 되면 학교를 못 가고 농사일을 하였을 정도니까 한 마디로 거의 농부처럼 일을 하였다.

큰형이 일구어 놓은 과수원에서 서서히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땅

은 사람이 노력한 대가를 꼭 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쁨은 같이 찾아오는 걸까, 친척이 과수원을 우리 형이 어릴 때부터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어 개간한 것이라며 개간하기 전의 야산 가격으로 싸게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에게 서광이 비친다는 생각에 말 그대로 신바람이 났다.

그때 내가 형에게 농사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경운기를 사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건의하였더니 선뜩 사주었다. 경운기가 우리 마당에 들어오는 날 나는 너무 기뻐서 잠도 오지 않았다. 심지어 경운기 추레라에 가마니를 깔고 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당시는 동네에 경운기가 많지 않아 집에 경운기가 있으면 자랑거리였다.

그렇게 중학교도 못 갈 뻔한 나는 배움에 대한 한이 있었던 덕에 열심히 노력하여 성적도 향상되고, 과수원에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형도 공장에서 월급도 오르고 하면서 빚더미에 짓눌러 영원히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정 형편이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형은 나에게 고등학교까지 더 다녀 보라고 하여 또 고등학교도 다니게 해주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나의 배움의 끝은 이제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전히 농사일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노력하여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 보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하였다. 나의 학교 성적은 더욱 향상되었다. 그때 나는 '도시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아니 안 하는 것일까? 토요일, 일요일 농사일도 안 하면서…, 내가 도시에 살면 전교 1등도 하겠다' 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럭저럭 고 3이 되었다. 담임선생님은 나의 성적을 보고 어느 정도 되니까 대학에 원서라도 써 보자고 하셨다. 형도 그렇게 하라고 하여 합격을 하였다. 그 당시는 대학을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동네 아이들 13명 중 3명만 합격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더 좋아

하셨다. 이렇게 하여 중학교도 못 다닐 상황에서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뭐라고 표현할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것일까 싶었다. 하지만 농사일은 항상 나와 동반자였다. 그러다 보니 방학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다른 친구들처럼 토플을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과수원 일로 해보지 못했다. 겨울 방학 때는 구덩이를 파 거름을 주고 여름 방학이면 수확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름이면 복숭아를 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족은 아무리 더워도 피서는커녕 그늘 나무 밑에서 잠시 쉴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렇게 해야만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게을리 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생각하며 참고 이겨 낸다. 정말 나의 배움의 생명줄이 길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농업은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였지만 내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은 내 삶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오는 동안 솔직히 어떨 때는 가난을 한탄하기도 했고, 어렵고 힘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군소리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큰형을 보며 '형이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펴졌던 두 주먹을 몇 번이나 쥐곤 했다. 눈물로써 참고 이겨 내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이다.

그때 큰형의 생활 모습에서 나는 교사가 된 지금도 농촌 생활에서 길러진 소박한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그리고 '지시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자' 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

Ⅲ. 고행의 터널을 지나 맛보는 환희

우리의 살아온 어렵고 힘든 과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냐마는 그것을

말끔히 씻어 주는 일이 생겼다. 아니 고통을 씻어 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다. 천지신령께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 형을 보고 감탄하셨는지, 어머니는 농사일로 병들었던 몸이 비록 등이 굽었고 게다가 그 등에는 커다란 흉터가 두 곳이나 남아 있지만 아프지는 않게 되었고, 아버지도 어느 정도 생활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 나으셨다는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 여느때처럼 큰형이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갔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못 고치겠다고 집으로 모셔 가라고 한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의심하며 '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 맞느냐' 고 물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뭔가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할까 좌우지간 말로는 그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 온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부둥켜안고 얼마나 통곡을 하였던지,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아프다더니 결국 눈을 감고 말았구나!' 생각하며 찾아왔을 정도였다. 정말 얼마나 울었던지 모른다. 우리에게는 멀리 있을 것이라고, 해당 사항 없을 것으로 생각하던 '행복' 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봄에 싹이 트고 꽃이 피기까지는 지난 겨울 모진 추위를 잘 참아 냈다는 결과물인 것처럼 모든 숨어 있는 것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아름다움과 희망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자연의 이치 같은 것을 알 것 같았다.

Ⅳ. 마무리

나는 지금도 농촌을 보며 우리 학생들에게 말한다. 어느 부모든 자신들보다는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땡볕에서 등이 휘도록,

손발이 터지도록 들녘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하자고!

나에게는 농촌에서 생활했던 그 경험이 내 삶의 철학이며 내 생을 일깨워 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농촌은 나를 성장시켜 준 은사며 스승이다.

나는 농촌이 죽으면 우리 인간들도 죽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촌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힘차게 박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장에 비유하고 싶다.

내가 만약 평범한 도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과연 이렇게 노력하며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아 가며 생활할 수 있었을까? 나는 감히 자부한다. 내가 그런 농촌의 생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는 말처럼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꿋꿋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 준 농촌이 있었노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초근목피(草根木皮)의 시절을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다.

내가 겪은 역경과 심리적 외상의 경험이 고통으로써만 부각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원숙한 인간이 되게 하는 값진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역경과 난관이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는 불굴의 인내심을 길러 주는 곳이 농촌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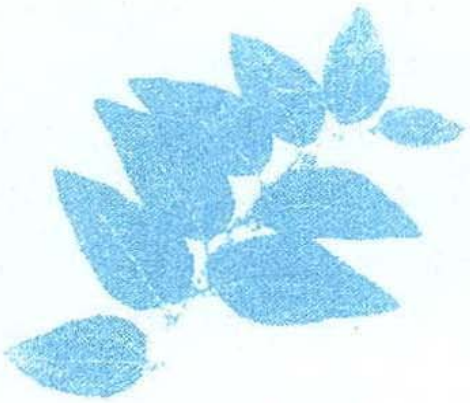
이렇게 지나고 보니 상반적 시각을 상보적으로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는 농촌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인생 시간표' 는 학생들에게 농촌을 바로 알게끔 하는 것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학교4-H를 맡아 농업 농촌 지킴이 활동과 팜스테이를 통해 영농 체험을 하게 하며 텃밭 가꾸기를 통해 고구마 · 배추 · 토란 · 옥수수 등을 재배해 보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들이 농부들의 얼마나 많은 손길과 땀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일깨워 준다. 그렇게 하여 내가 오늘날까지 있게 해 준

그 농업을 학생들이 알게 하여 자연사랑 농촌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물난리에 1년 내 고생하여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이 잠겨버리고 떠내려 가버린다든지, 종자가 잘못되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다든지 하는 뉴스를 보면 지금도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리고 나도 결국 교사 퇴임을 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쓰라린지도 모르겠다.

올해로 우리 나라의 농업이 '근대화 100년' 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는 농업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신석기 시대 농경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농사를 제일로 하는 농본 국가로서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과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아직도 위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해는 농업 개방화 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우리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농촌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님과의 약속

대학 · 일반부

김 경 숙 전남 강진군

아침 일찍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정원 가득 잔디가 가지런히 푸르고, 자연석을 쌓아 올린 마당가 담장 위에는 철쭉과 영산홍을 비롯한 갖가지 꽃나무와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땅 힘을 받아 짙푸르다.

6년째 부리고 있는 타우너의 뒷 트렁크에 낫과 삽, 그리고 장화를 실은 다음 시동을 걸어 집 밖을 나선다. 들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시원한 아침 바람이 열어 놓은 차창으로 들어와 상쾌하다. 국도를 벗어나 농로로 들어서 논가에 차를 세운다. 차에서 내려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다.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푸른 벼들이 일제히 인사를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밤새 잘 자고 잘 자랐구나 싶다. 삽을 꺼내 들고 논둑을 돌며 먼저 물꼬를 살핀다. 아무 이상이 없고 수량(水量)도 적당하다. 작년에는 피사리가 안돼 이맘때쯤 피를 뽑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금년엔 깨끗하다. 또, 그때는 밑거름이 적었던지 벼가 상당히 자랄 때까지 노리끼 하더니 금년에는 너무 짙푸르러 도장을 한 것 같아 오히려 조금 께름칙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생각을 한다. 엊그제 논가에서 만난 이웃마을 아저씨도 '어떻게 여자 혼자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느냐' 고 하지 않았던가? 인근에서 알아주는 소위 농업 박사라는 분의 말이니까, 그런대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은 가당치가 않다. 잘된 농사가 매년 알이 채 여물기도 전에 불어닥치는 태풍으로 완전히 도복이 되어 파농을 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 않았던가? 병충해도 전년에 비해 그리 많은 것 같

지 않다. 금년은 장마가 유달리 길었었는데도…. 그러나 이것도 안심은 금물이다. 이른바 덕석 멸구라는 벼멸구는 하룻밤에 온 논을 덮쳐 버린다. 이래저래 농사는 농민의 가슴을 조이게 한다. 마치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심정과 같다고 할까? 논두렁도 깨끗하다. 며칠 전에 예초기로 풀을 베어 내어 짧다. 옛날 마을 안길을 뛰놀던 바리깡으로 깎은 동네 아이들 머리통 같다. 30여 두락의 논을 둘러보고 나니 해가 떠오른다. 벼 포기에 맺힌 이슬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다. 논두렁을 걷는 발과 바지에 이슬이 젖는다. 내일 또, 오마 고 하며 다음 논으로 향한다.

6년 전.

남편은 한사코 말렸다.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모든 사람이 농촌을 떠나는데, 시골에 내려가 여자의 몸으로 혼자 농사를 짓겠다니 황당했으리라. 그러나 숙고 끝에 결심한 터라 끝까지 남편을 설득했다. '지금까지 아이들 셋을 남보다 월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두 무난하게 키웠다. 이제 몇 년이 더 지나면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없을 것인데, 그래도 조금은 젊었을 때(?) 몇 년간이라도 내 논에 농사를 지어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시골에 집이 있지 않는가? 또, 농사일이 옛날과 달리 기계로 하니 전화로도 그때그때 부탁을 해서 할 수가 있고, 40여 두락의 논이라면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일 년에 다소 얼마 정도는 수입이 생겨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러나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간을 사정해도 남편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유는 아이들 버릇이고 공부였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남편은 내가 없으면 아이들 버릇이 어떻고, 공부가 어떻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시골의 형님 내외분 때문이라는 것을….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난 뒤로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을 형님께서 우리 논을 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벌지 않겠다고 하시면 몰라도 어떻게 벌고 있는 논을 먼저 내 달라고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이유인 것이다. 항상 남편은, 자기는 그래도

광주에서 공무원 생활이라도 하고 있는데, 단 한 분뿐인 형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조카들을 도시로 유학시키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입버릇처럼 되내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생각을 했었다. 큰집은 이제 2남 2녀의 조카들을 전부 잘 가르치고 결혼시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 셋을 대학을 졸업시켜 결혼시켜야 하고 또 분가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축은커녕 마이너스통장 신세를 지고 있다. 또, 아이들도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그 모습을 본받을 것이고, 주말마다 건강을 생각한다고 무등산을 오르면서 시시껄렁한 잡담이나 주고받고 하느니, 그 힘을 운동 겸 몸공(노동력)을 들여서 농사를 지으면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설득과 회유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설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40여 두락(8.000평)의 논을 내 혼자의 힘으로 지을 수는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였다.

남편과 나의 입씨름은 그해 겨울을 넘겼다. 그리고 다음해 봄이 왔다. 어느 날 시숙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허리디스크로 다리까지 이상이 있어 금년부터는 농사를 못 지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나는 안다. 어느 정도 몸이 불편하시다 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농사를 못 지을 정도의 이유가 아니시라는 것을…. 시숙님은, 제수인 내가 농사를 이제 직접 지어 보고 싶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동생이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 두 형제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 형에 그 동생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마음이 착잡했다.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정 붙여 지으신 논을 내어놓는 것은 마치 혈육을 떼어 놓은 아픔이셨으리라.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숙님의 전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조금은 이상한 짓까지 했다. "제가 지금까지 사서(四書)를 다 읽고 이제 주역(周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신과 나는 잠깐씩 떨어져 살아야

하는 운(運)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웃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무겁고 긴 허락을 했다. 실로 어려운 설득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허락 또한 긴 단서를 붙인 것이었다. 내용인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아이들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 것과, 세탁이나 반찬 마련 등 주부로서의 역할을 농사를 짓지 않을 때와 꼭같이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남편 자신을 비롯하여 식구들 아무한테도 농사일을 조력해 달라거나 하지 말 것 등이었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미 그런 것 들은 각오하고 있었고, 또 설령 그 단서들에 조금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소 남편은 이해심이 많았고 아이들 또한 착해, 모두 다 잘 해나갈 것 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이었다.

2001년 봄. 영농 준비를 시작했다. 40여 두락의 논을 깊이갈이를 하는 한편, 농협에서 700만 원의 영농자금을 얻어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었다. 곧이어 침종을 하고 860상자의 묘판을 하여 6월 초순에 모내기를 모두 끝마쳤다. 여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이앙을 한 것이다. 몇 줄의 글로 표현하니 짧다. 그러나 그 과정은 처음이라서 그랬던지 너무나 어려웠다. 물론 남편에겐 어렵다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했다. 그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벼는 잘 자라주었다. 몇 번의 태풍이 있었으나 한 포기 쓰러지지도 않았고, 병충해도 별로 하지 않았다. 도열병 약과 이화명충 약을 각각 한 번씩 했을 뿐이었다. 또한 한편으론, 남편과의 약속대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틈틈이 광주엘 가서 집안 청소와 세탁, 그리고 반찬 등을 마련해야 했고, 그 밖의 집안일을 살피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했다. 8,000여 평의 논에서 일미벼 130가마, 동안벼 120가마, 남평벼 80가마, 총 330여 가마의 벼를 수확했다. 대체로 풍작이었다. 벼를 건조기에 다 말려 창고에 넣은 후 우선 벼 몇 가마를 싣고 가서 큰댁 방앗간에서 찧었다. 그리고 밥을 했다. 내가 직접 생산한 쌀로 지어 만든

최초의 밥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아무에게라도 자랑을 하고 싶은 심정이였다. 몇 가마를 더 찧었다. 서울친구에게 2가마를 소포로 부치고, 광주 친구에게 2가마를 부쳤다. 며칠이 지난 후 서울과 광주에서 전화가 왔다. 탁송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있는 대로 찧어서 부쳐 달라는 것이엇다. 값도 수매용 벼보다는 더 높게 쳐 주었다. 밥맛이 좋아 너도나도 한다는 것이다. 곧바로 가정용 정미기를 한 대 샀다. 추곡수매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식구가 1년간 먹을 15가마의 벼를 남기고 전체를 다 찧어 보내 버렸다. 실로 예상치 않은 일이었다. 그해 우리에게 배정된 80가마의 추곡수매 전량은 다 큰댁으로 돌려 드렸다. 수매에 응할 벼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을에선 수매 배정량을 좀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어째서 내 논에서 나온 쌀이 그렇게 밥맛이 좋은지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얕은 야산을 개답한 논이 개답 당시 짙은 팥 색깔의 흙이었었는데 그것이 아마 갖가지 미량 원소여서이지 않은가고 생각할 따름이다.

수지계산서를 만들어 봤다. 벼를 다 처분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은 영농 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1천9백만 원이었다. 비료대와 농약대, 그리고 각종 농기계 사용료와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하니 약 15백만 원의 수익이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지만 ……. 농협통장위로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얼굴이 오버렙되어 왔다.

언제였던가? 멀다면 먼, 그러니까 내가 시집온 지 일 년이 되지 않아서였다. 나를 친딸보다 더 사랑하셨던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나를 불러 머리맡에 앉히시고 조용히 말씀을 하셨다. "너희에게 큰 바람은 없구나. 허나 네 남편이 면에 다니니까 다음에 면장이라도 한 번 했으면 싶고, 논을 다섯 두락 너희들에게 물려줬는데 그걸 늘려서 한 50두락 정도 만들어 봤으면 싶다. 너의 시삼종 숙부가 천석군을 했었는데 젊었을 때 그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구나. 내가 좀 더 많은 논을 너희에게 물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야

했는데…. 민하, 태형이 영리한 아이들이니 잘 키워라."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는데 초여름의 햇볕이 고즈넉한 집안 가득 쏟아지고, 장독대 곁에 붉은 접시꽃이 처연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그때 결심을 했다.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애물단지이자 천덕꾸러기인 논이 그 당시 시골에선 부의 척도였고, 그 논을 많이 가져 보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었던 때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때의 아버님 말씀을 망각해 본 적이 없다. 입버릇처럼 하시던 '농자 천하지 대본' 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골을 떠나 광주에 있으면서도 항상 농사를 생각했었고, 마음 한 구석엔 언젠가는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일신의 편안함(?)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해야 할지….

위에서 수지계산을 했지만 굳이 나는 농사의 소득이나 수익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에 그렇게 연연해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봄에 씨를 뿌려 이앙을 한 후 며칠이 지나 어린모가 무논에 뿌리를 내리고 푸르러질 때 나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는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농사를 짓는 소기의 목적을 달했다고나 할까? 농사에 무슨 얼어죽을 낭만이고, 시심(詩心)이냐고 힐책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 푸른 들판의 벼들은 수천 년 우리 조상들의 피[血]고 살[肉]이고 그래서 곧 생명 그 자체였다.

나에게는 저 맑고 시원한 들판을 걸어 돌아오는 것이 무등산을 오르는 것보다 몇 배 더 즐겁고 더 큰 운동이다. 내가 키운, 내 땀이 벤 수많은 벼들이 나를 맞아 주고 그것들과 대화를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 온 것이 6년째에 접어든다. 농사도 관록(貫祿)이 붙는지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여유를 부린다. 농사를 짓는 와중에도 틈틈이 바다엘 나가 조개나 굴, 그리고 심지어는 낙지까지 잡아 광주 식구들의 식탁에 올린다. 또 무관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월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광

주엘 가서 한문 공부를 한다. 한문 공부는 15년째이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무서운 여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내 힘이 소진하는 날까지 내 육체를 주리고 그리고 고달프게 해서 나의 논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꿀 것이다. 그것이 비록 남의 눈엔 변별력 없고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각각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구했다. 하나 남은 아들도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니 머지않아 취업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금년 농사를 끝내고 나면 집을 수리하려고 한다. 25년 전, 지금은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된 딸 미영이를 낳은 해에 내가 직접 지은 내 손때가 묻은 한옥이다. 그때 기념으로 심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지금은 사립문 양 켠에서 하늘을 찌른다. 대지는 약 400여 평. 나는 여기에 갖가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리라. 그 사전 작업으로 마당은 이미 잔디를 조성했고, 둘레로는 자연석을 쌓아 올렸다. 또, 마당가 낮은 담장 위로는 철쭉과 영산홍, 그리고 작은 정원수들을 심었다. 그리고 또, 금년 여름에는 토방 한쪽을 밀어내 조그만 정각(?)을 하나 세웠다. 이름 하여 관해루(觀海樓)라는…. 바람이 시원하고 저 멀리 다도해의 작은 섬들이 떠 있는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이젠,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남편도 언제 그랬었느냐는 듯이 주말마다 내려와 집 안팎을 돌본다. 조금 있으면 그이도 정년을 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렇듯, 내 여력이 있는 날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일상에서는 집과 뜰을 가꾸고 산새 소리, 풀벌레 소리와 그리고 바다 소리를 벗 삼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사는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들이 나나 내 남편의 생일이라도 되어 찾아오면, 청포도가 없더라도 앞뜰에 하얀 탁자를 꾸미리라.

국쟁이를 아시나요?

대학 · 일반부

이 상 용 충북 충주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 충주시다. 명색이 도시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소도시다 보니 아직은 농촌의 기운이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느껴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충주 시내를 조금만 나가보아도 논과 밭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여느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 동네만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나는 이곳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곳에서 살고 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농사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왔다. 할아버지께서는 일흔이 넘으신 연세에도 벼농사와 사과 과수원을 돌보시면서 지금도 생활하고 계신데, 할아버지께서의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새벽 4시 정도 기상을 하시고 먼저 벼농사 하시는 곳의 배수 상태나 벼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에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신다. 오전에 벼농사 지역의 코스를 모두 다 돌아보시고서는 차를 타고 약 40 정도 거리에 있는 사과 과수원으로 오신다. 사과 과수원에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더라도 하루에 다 못한다고들 하는데 그 엄청난 크기의 과수원을 할아버지께서 하루에 모두 처리하신다. 사과나무는 손 볼 일이 워낙에 많은데도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손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시니 말이다. 부자는 닮는다고 해서인지 그런 할아버지의 부지런함을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어받으신 모양이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나마 퇴근을 하시고

돌아오신다. 약 10년 전쯤 조그마한 땅을 구입하신 뒤로는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밭을 가꾸고 계신다. 가끔씩 가지만 한 번 가면 그동안 미뤄 오셨던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끝내시고서야 돌아오시곤 한다. 하지만 10년 전의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이어받지 못했었다. 지금은 다르지만 말이다.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께서 모내기를 하실 때 모판을 나르면서 벼농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워낙에 어렸고 잠깐 하는 일이었기에 즐겁고 신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도시에 살던 나는 농사일 구경을 한 적이 없으니 일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었고 할아버지께서 자상하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면서 어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곤 했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난 국쟁이라는 녀석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매년 4월이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피하고 싶은 계절이 되었다.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의 국쟁이……. 인터넷에 국쟁이라고 쳐 보니 국쟁이라는 말을 찾기조차 힘들다. 이렇게나 생소했던 국쟁이와 만난 건 이때였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대판 쟁기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과거에는 소를 이용한 쟁기가 많아서 밭농사나 논농사를 할 때 소를 이용해 땅을 고르고 정리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도시에서 소를 구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밭은 갈아야 하겠고, 소는 없고 해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국쟁이. 이 녀석은 생긴 것부터 왠지 좀 우습다. 먼저 온 전체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뭔지 알아보려면 유심히 살펴봐야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국쟁이의 앞에는 자전거 바퀴가 있어 쉽게 굴러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뒤쪽에는 쟁기가 있어 밭을 갈게 되어있으며 바퀴 앞쪽에는 끄는 사람이 끌고 갈 수 있게 잘 끊어지지 않는 줄이 위치하고 있다. 의외로 단순하게 생긴 이 기계를 처음에 보고선 참 당황스러웠다.

'설마하니 내가 끄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집안에 힘을 쓸 사람은 나 하나.

그렇다고 누나나 어머니가 끌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난생처음 국쟁이라는 녀석을 끌고 정말 몸져 누워 버렸다. 당시 중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그래버리니 시험도 시험 걱정이지만 그동안 안했던 일을 하니 정말 온몸이 다 뻐근할 정도였다.

아버지께서는

"남자 녀석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되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하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정말로 악소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다. 한 번 하고 몸져 누웠는데 그걸 또 하라고 그러시다니 정말 하기도 싫고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끄는 거야 잠깐하면 되었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우리 밭은 지나가는 차들이 볼 수가 있어 국쟁이를 끄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는 것이 싫었다. 아직 철이 들기 전의 시절이라서 남의 이목을 중시했던 시기였으니 말이다. 몸은 힘들고 주위의 눈치 보면서 하는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랬던지, 한 번 하고서는 온갖 방정을 떨면서 하기 싫다고 생떼를 썼던 기억이 난다. 국쟁이라는 녀석이 죽기보다 싫었고, 그걸 남들이 보는 데서 끄는 것은 더더욱 싫었다. 하지만 내가 싫다고 한들 뭣하겠는가. 아버지의 압력을 이길 수 없었으니, 결국 그 싫던 국쟁이를 만난 첫 해 그렇게 세네 번을 억지로 하며 밭을 갈고 옥수수를 심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밭을 왜 가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랑이나 고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밭을 가는 게 싫어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천금 같은 정보를 난 고스란히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었다. 국쟁이로 서너 번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밭을 간 뒤 옥수수 알을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괭이를 이용해 국쟁이로 만든 고랑을 더 평평하게 한 뒤에 고랑과 고랑 사이에 있는 이랑에 일정한

간격으로 옥수수 알을 서너 알씩 심었다. 옥수수를 먹는 것만 알았었지 처음 단계부터 하니 신기하기도 했고, 이게 언제 완성이 돼서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조바심도 들었다. 대략 3주 정도 지나니 옥수수 싹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잡초와 옥수수의 모양을 잘 몰라서 옥수수도 많이 밟아서 아버지께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난다. 옥수수라는 식물은 비온 뒤 며칠 있다가 가면 정말 눈에 띄게 무지하게 자라 있다. 그 기간이 짧건 길든 비를 맞으면 정말로 쫙쫙 큰다. 이렇게 옥수수가 점점 커 가니 시간이 점점 지나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데 아버지는 밭에 가자고 하신다. 남들은 피서를 즐기러 여기저기 바닷가나 산으로 놀러 가는데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밭이 생긴 이후부터 피서는 남의 일이었고 우리는 피서를 내 키보다도 훨씬 큰 옥수수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만 했다. 옥수수가 내 키보다도 더 커지니 참 신기했다. 그 조그마한 옥수수 알이 나보다도 더 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적게는 하나, 많게는 세 개정도의 옥수수가 익고 있는 것을 보니 자연의 위대함을 또다시 느낄 수가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당장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니 힘도 배로 들고 짜증도 많이 났다. 철없던 시절에 그저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만 좋았지 누가 뜨거운 여름에 밭에 가서 고생을 하고 싶어 했겠는가? 기회를 노려서 한 번은 아버지께 대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더 크게 혼나고 말았다. 내가 옥수수를 가꾸는 게 아니고 옥수수가 나를 가꾸는 것 같았다. 저 놈의 옥수수만 아니면 즐거운 방학과 더불어 신나게 놀 수가 있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저 묵묵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름이 서서히 저물 무렵 드디어 우리 밭에도 수확의 시기가 왔다. 우리 밭이 비스듬하게 경사가 있어서 위쪽에서 보면 밭의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가서 보니 벼의 황금 물결은 아니지만 한여름 동안 푸르렀던 옥수수가

노랗게 물이 들고 눈에 익은 가을 곤충들이 보이니 그것도 볼 만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 감상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어마어마한 양의 옥수수를 등에 짊어지고 위쪽으로 나르고 나른 옥수수는 껍질을 까고 수염을 걷어 내고 하다 보니 금쪽 같은 주말이 정말 한순간에 휙 하고 사라져만 갔다. 그 당시 나는 주말에 약속을 할 수도 없었고 주말이 싫었다. 오히려 학교에서 책을 보는 게 더 편하고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어김없이 주말은 찾아오고, 옥수수와 인사하러 또 밭으로 가게 되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이때쯤부터 내 마음이 바뀐 것 같다.

"어차피 하는 일 신나게 하면서 잘해 보자"라고 말이다.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것이다. 곰곰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국쟁이를 끌 때 뒤에서 쟁기를 조절하는 것도 끄는 것보다도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밭에 풀들이 한창 자랄 때 무거운 제초기를 짊어지시고 땀이 범벅이 되시면서 제초도 하시고 농약 통을 짊어지시고 독한 농약 냄새 맡으시면서 농약도 치시고 나무의 가지들이 늘어지면 그것도 톱이나 낫으로 베어서 멀리 버리시고, 아버지에 비하면 난 뭐 거의 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국쟁이 끌고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옥수수 나르기 싫어서 딴청부린 짓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럽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느끼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할 만한 일들로 바뀌기 시작했다. 역시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일하는 것도 달라졌다. 혼자 여러 모로 느낀 게 많았던 수확의 시절이 가니 아쉽기도 하고 개운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다. 우리 가족이 처음 옥수수를 심어서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참 많이도 심었었다. 우리가족이 수확한 옥수수를 다 먹을 수도 없어서 이웃들도 나눠 주고 친척들에게 나눠 줘도 너무 많아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참 정신없이 시간이 가니 어김없이 날이 추워지고 곧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풍성했었던 옥수숫대들이 하나같이 앙상해

지고 부러져서 밑동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보니 약간은 허전함이 느껴졌다. 그 옥수숫대들을 모아서 태우고 그렇게 밭농사의 첫 해가 저물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느낀 게 많은 한 해로 기억이 된다. 철없던 시절에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해로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첫 해에 옥수수만 키웠던 우리 밭은 지금은 종류가 정말로 다양해졌다. 첫 해에 순수하게 옥수수만 심었었지만 해가 점점 지날수록 우리 밭에는 점점 더 많은 작물과 나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옥수수를 포함하여 가지, 고구마, 호박, 풋고추, 방울토마토, 콩 등 말 그대로 무공해 작물들이다. 고추 같은 경우는 따서 바로 먹기도 한다. 매운 것을 워낙에 잘못 먹다 보니 아예 심을 때 매운 고추와 안 매운 고추를 나눠서 심어 버렸다.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은 아직 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리면 그것을 따 먹으면 사 먹는 것과는 맛이 정말로 천지차이이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 밭도 많이 바뀌고 나 자신도 중학생에서 군대까지 다녀온 복학생이 되었다. 이제는 밭이 좀 자리를 잡아서 국쟁이를 첫 해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꾸준히 봄이 되면 어김없이 나와 사투를 벌인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자라서 국쟁이에게 지거나 짜증을 내는 일도 없고 오히려 우리 가족이 서로 웃고 즐기면서 더 화목을 다지면서 일을 하고 있다.

벼은이와 함께한 2001년

고등부

곽 효 은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2001년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경험담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일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소중한 관찰 일기를 기증하고 와서 벼은이와 함께 했던 추억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일기장과 학교 문집을 뒤져가면서 내 머리 속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다.

우리 6학년 3반은 아주 특별한 반이었다. 우리 반은 다양한 행사에 많이 참여했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했던 경험은 농협에서 주관 운영하는 〈꿈나무 벼사랑 체험농장〉에 참여한 것이다. 2~3년 전부터 매년 우리 학교 건물 앞에는 양동이에 벼가 자라고 있었다. 담임선생님께서 선배들과 함께 키웠던 것이다. 나도 이것에 참여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2001년 봄, 5월 10일 플라스틱 상자에 흙을 반을 담고 물을 채워 놓았다. 그리고 며칠 뒤 16일에 3반 친구들과 모내기를 하였다. 선생님께서 모 심는 방법을 설명하신 후에 우리들은 각자 주어진 플래스틱 상자에 6개의 모를 심었다. 난생 처음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 6개를 심는 것도 어려웠다. 매년 시골에 가면서 벼를 보기만 했지 이렇게 모를 직접 심어 본 적은 처음이었다. 교실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 관찰 일기를 한 권씩 받았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벼에 이름을 짓고 하루하루 자라는 벼를 관찰하며 일기를 쓰라고 주는 겨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다.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고민 끝에 나의 이름의 '은' 자를 붙여서 '벼은이' 라고 지었다. 내 기억에는 친구들 중에 가장 촌스러운 이름 같았다. 그래도 난 벼은이가 정겹

게 느껴졌다. 난 색연필과 사인펜, 색깔 있는 볼펜으로 벼은이도 그렸다. 관찰 일기 형식을 글로, 만화 그림으로, 동시로, 편지글로 다양하게 썼다. 또한 관찰 일기를 쓸 때 매일 날씨를 알아보는 습관이 길러진 것 같다.

이제부터 벼를 관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5월 30일, 벼은이의 생육 촉진을 위해 거름으로 요소 비료를 주었다. 모내기를 한 뒤 며칠이 지나서 잎의 수가 불어났다. 비료를 주워서 그런지 정말 키가 부쩍부쩍 자라났다. 6월 11일, 벼들의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잡초를 제거하였다. 잡초들이 옆에 있으며 벼들이 섭취해야 할 물까지 잡초들이 다 먹는다고 한다. 나는 잡초도 식물인데 뽑아야 하다니 불쌍하였다.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잡초의 존재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플래스틱 상자에 피, 개구리밥, 생이가래 등 논에서 자라는 식물을 관찰하였다. 정말 개구리밥을 처음 보았는데, 귀엽게 생겼다. 내가 5학년 때 집에서 개구리를 키웠을 때, 악몽이 떠올라 개구리밥이라고 해서 징그러울 줄 알았다. 하지만 작고 귀여운 식물이었다. 내 작은 논에 개구리밥이 많이 생겨서, 개구리밥이 적은 친구에게 나눠 주곤 했었다.

어느 날, 벼은이를 보러 갔는데, 벼은이가 많이 아파 보였다. 벼은이의 새파랗던 잎이 누렇게 변한 것이다.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벼은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벼는 날씨와 해충, 잡초에 영향을 많이 받고,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오갈병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벼은이가 병에 걸려서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그래도 벼은이는 잎만 조금 누렇게 되었을 뿐 그 병들과 연관이 없었다. 단지 내가 벼은이를 주의 깊게 관찰을 안 해서 누렇게 된 것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벼은이가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한 시름 놓았다. 한편, 벼는 많은 환경에 의해 병이 들어 농부들에게 큰 걱정과 시름을 안기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여름에 장마

철이 지나고 나면 벼들이 축 늘어진 모습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농부들의 마음은 어떨까?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사람도 그렇듯 벼도 똑같이 갈증이 많이 났나 보다. 정말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대단했다. 친구와 함께 물을 주러 1층 현관 앞으로 자주 내려갔다. 벼은이는 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월등히 컸던 것 같다. 벼가 여름에 걸리기 쉬운 목도열병 예방을 위해 농약(시노산)을 주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2001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우리 반은 또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 충북 농협에서 주최하는 〈팜스테이를 통한 농촌현장 체험〉을 하게 되었다. 벼은이를 키우면서 벼농사,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농촌에 직접 가서 체험도 하게 되다니 나는 많이 설레었다. 3반 친구들과 괴산에 있는 농가를 찾아갔다. 괴산에 가는 길에 우린 초정 김치공장, 괴산 고춧가루 공장을 견학했다. 고춧가루 공장에서 매운 냄새가 나서 코가 찡끗했다. 농촌에서 고구마 캐기를 했다. 김치와 함께 고구마를 먹어는 봤지만 직접 캐본 것은 처음이었다. 친굳들과 한 조가 되어서 고구마를 캤다. 우리들이 직접 땀 흘려서 캔 고구마를 들고 "고구마~"를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지금 고구마를 외치며 찍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다음으로 모두 물놀이를 즐겼다. 지방 2급수 하천인데 무심천보다 훨씬 맑았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바위들 사이사이에 다슬기가 붙어 있고 민물고기도 다녔다. 민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슬기 잡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가 직접 잡은 다슬기로 국도 끓여 먹었다. 직접 인절미도 만들었다. 찹쌀을 방망이로 찧는데, 힘 좋은 나도 찹쌀이 자꾸 방망이에 붙어서 힘이 들었다. 즉석에서 찹쌀을 콩가루에 묻힌 다음에 입 속에 넣었다. 그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은 잊을 수가 없다. 밤이 되어서 우린 밤하늘 별자리를 공부했다. 정말 청주와

멀지 않은 괴산은 하늘에 별이 수를 놓은 것 같았다. 팜스테이 영농체험을 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달은 것 같다.

추수의 계절, 가을 하늘은 한 없이 높아졌다. 농촌에서 참새가 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는다. 우리도 참새로부터 우리들의 벼를 보호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만들기로 했다. 집에서 못 입는 옷과 모자를 가지고 와서 2조로 나눠서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하얀 천에 솜을 가득 넣고 허수아비 얼굴을 그리고, 모자를 씌워 주고, 옷도 입혔다. 사내아이들은 참새를 쫓으려면 강한 허수아비를 만들어야 한다며 허수아비 얼굴을 험상궂은 조폭 아저씨처럼 그려 놓았다. 벼은이의 보디가드, 허수아비 아저씨와 함께 친구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벼은이의 보디가드, 허수아비 아저씨가 생긴 후 벼은이는 더 많이 자랐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다. 벼은이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는지 누렇게 익어 갈수록 나에게 꾸벅 인사도 잘하였다.

10월 5일, 내가 열심히 길러 온 벼은이와 작별하는 날이 왔다. 바로 추수하는 날이 온 것이다. 직접 낫으로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벼를 베었다. 이젠 지난 5개월간 매일매일 관찰하고 일기를 쓰는 것을 못하게 되다니 참 아쉬웠다. 또 매일 등교할 때, 쉬는 시간, 하교 시간에 벼은이를 볼 수 없게 되니 아쉽고 쓸쓸했다. 벼은이는 쌀이 되고 또 떡이 되어서 내 앞에 돌아왔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은 쌀로 만든 떡이라서 그런지 그 때 먹은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선생님께서 내가 관찰 일기를 참 열심히 잘 쓴다고 친구들에게 칭찬을 하셨다. 벼은이의 관찰일기 기록이 우수하다고 추천이 되어서 나는 대표로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반에서 5명만 받을 수 있었던 충북지역본부장상이어서 나는 천 배, 만 배로 기뻤다. 벼은이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해 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보답으로 표창장을 준 것 같았다.

지금은 관찰 일기를 학교에 기증하고 졸업해서 벼은이와의 추억이 생생하

게 떠오르지는 않아서 아쉽다. 내가 직접 모내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작은 벼농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난 작은 벼농사를 하면서 힘든 점도 적지 않았다. 벼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부 아저씨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한 톨도 남김 없이 다 먹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또 작은 벼농사를 해본 사람이라고 가끔 티를 내기도 한다. 가을이 오면 황금 벌판이 되는 논을 보고 6학년 때 벼은이를 기른 것을 생각해 본다. 나중에 내가 노년기가 되면 시골에서 벼농사, 고구마농사 등을 하며 살고 싶다.

나는 벼농사 체험 농장에 참여하면서 관찰 일기를 통하여 자연 사랑 정신과 생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쑥쑥 자라난 것 같다. 벼농사 체험을 통하여 노력한 수고와 땀의 결실을 체험하고 농촌에서 하는 일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벼은이와 함께 한 2001년, 나에게 농작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특별했던 농촌 체험을 잊을 수가 없다.

고등부

'슬기 감자밭'을 가진 농촌 소녀 이야기

이 슬 기 포천 관인고등학교 1학년

나의 하루는 눈을 뜨자마자 집 옥상에 올라가 넓게 보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시작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매일같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봄엔 아직 작은 벼 모종이 파릇하게 들판을 물들이고 여름엔 제법 큰 벼들이 시원스럽게 자라 있고, 가을엔 그야말로 절경이다. 황금빛의 벼들이 가을 바람에 춤을 춘다. 그것을 보면 나도 저 벼들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 겨울엔 하얀 눈을 뒤집어쓴 온 들판, 산. 세상이 모두 하얗다. 이건 아마 농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서 가장 위쪽 강원도 철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겨울이 가장 빨리 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그야말로 온 천지가 논과 밭과 산이다.

나는 이곳에서도 작은 마을에 산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17년을 이곳 농촌에서 살아왔다. 그런 덕분인지 마을 모든 사람들을 다 안다. 심지어 그 집 숟가락 개수도 다 안다고나 할까? 우리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언니, 오빠, 동생들 모두 다 한 가족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 공유한 언니, 오빠, 동생들은 더욱 정겨운 나의 가족이 되었다. 여름이 되면 같이 모여 개울에서 어망을 들고 물고기를 잡았고, 겨울이 되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 썰매를 탔던 기억들. 도시 어린 아이들이라면 조기 교육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빴을 테지만, 지금 고등학생인 나에게는 어린 시절 기억이 가장 소중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사실 농촌이란 곳에서 살다 보면 도시에서 사는 것과 달리 영화와 공연 등 대중문화를 많이 즐길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농촌에 살고 있는 나와 같은 학생들은 도시 아이들보다 좋은 여건에 있지 못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연이 주는 선물을 고스란히 받으며 맑은 공기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친구들이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겹다고 보면 지겨울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린 함께 해 왔다. 거의 친구들은 서로 10년 넘게 알아 온 사이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족 같고 소중하다.

우리 학교 전교생은 150여 명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학년이 아니어도 이름, 사는 곳 그런 사소한 것도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작은 학교이고, 학생 수도 적지만 대도시 학생들처럼 내신제니 뭐니 하면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동과 협력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다. 작년 겨울 중3인 나는 졸업을 했다. 전교생이 적어서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과 같이하게 되었다. 중3인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로 거의 올라가기 때문에 졸업식이 그냥 작은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3인 언니, 오빠들은 졸업을 하는 도중에 거의 다 울었다.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과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매일같이 보던 얼굴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언니, 오빠들이 우는 것을 보고 나도 마음이 뭉클했다. 나도 이제 3년 후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겠지…, 낯설고 두려운 도시라는 곳에서 살게 되겠지…, 시골에 있는 부모님과도 헤어져 살아야겠지…, 어른이 돼서 농촌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나에겐 아직 두려운 일인 것 같다.

예전에 1998년에 홍수 피해가 이곳에 심하게 났을 때, 이런 시골에서 살기 싫다고, 비만 오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시골에서 살기 싫다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리자고 어머니에게 졸랐던 적이 있었다. 그땐 어린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다. 논에 물이 차서 벼들은 보이지 않고, 개울은 넘치

고 수확을 앞둔 고추들은 빗물에 떠내려 갔다. 여름 내내 키운 고추를 하나라도 더 물 속에서 건지려는 부모님. 비와 태풍 때문에 모든 벼들은 쓰러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쓰러진 벼를 바라보며 애타게 담배만 피우시던 아버지. 자연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농촌에 산다는 게 너무 싫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태풍도 너무 미웠다. 그런데 부모님은 한결같이 수십 년을 농촌에서 살아오셨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예보를 보면서 생활하신다.

나는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도와 감자밭에 감자를 캐는 것을 도와드렸다. 감자 줄기를 당기니 뿌리에 주먹만한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이곳저곳에서 감자가 주렁주렁 나온다. 행여 호미로 캐면 감자 몸이 상할까봐 어머니께서는 조심조심하신다. 감자를 한 소쿠리 넘게 캐니 나도 모르게 뿌듯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럭무럭 자란 자식 같은 감자를 보니 더위도 금방 잊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맛있는 감자를 쪄 주셨다. 나는 햄버거, 피자 같은 것보다 담백하고 고소한 감자를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좋아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매년 나를 위해 밭 한 모퉁이에 '슬기 감자밭' 이라며 감자밭을 따로 키우셨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엄마는 서울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적 없었어?"

어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며 "엄만 이곳이 너무 좋아. 좋은 공기 마시며, 밭에 고구마 · 감자 · 고추 · 토마토 심으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힘든 농사일을 하시느라 몸은 힘드시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행복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 이곳 농촌에 사실 때 가장 행복하실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부모님의 자식 같은 벼, 작은 밭을 보실 때마다 부모님은 행복해 하신다. 나도 물론 부모님이 직접 키우신 채소를 먹고, 과

일을 먹고, 밥을 먹고, 모든 걸 믿고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배추밭에 아버지의 적이 나타났다. 두더지가 배추밭에 나타나 배추밭을 헝클어나 버려서 배추들이 크질 않는 것이다. 일 년 내내 먹을 김치를 담글 배추인데, 우리 집은 큰 비상이 난 것이다. 아버지와 나와 어머니는 돌아가면서 배추밭을 돌아다니며 두더지가 나타나나 감시를 했다. 땅 속을 지나다니는 두더지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며칠을 허탕만 치고 말았다. 두더지들은 가족인 양 여러 마리 있었다. 우리 가족은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이대로 배추밭이 망가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가 며칠을 탐색한 결과 두더지굴을 찾아낼 수 있었다. 두더지굴에서 간신히 두더지 가족을 꺼낼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두더지 가족을 다른 곳에 풀어 주었다. 두더지는 주먹만하고, 입은 뾰족해 귀엽게 생겼다. 두더지 가족을 우리 배추밭에서 살지 못하게 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두더지 가족들이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밭에 피해 주지 말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자연과 동물과 함께 살아간다. 도시아이들이라면 도시 안에서 두더지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일이겠지. 이번 해에는 두더지 가족들이 이사를 가 준 덕분에 처음에 두더지 때문에 잘 자라지 못했던 배추도 지금은 무럭무럭 크게 자라났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생활 안에서도 사소한 걱정거리들은 존재한다. 고교생이 된 후로는 더욱 마음을 쓰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시골에 살다 보니 도시아이들과 경쟁하였을 때 뒤처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다.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미국으로 유학가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지금 집 사정과 이러저러한 것을 보면 그건 지금으로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혼자 책을 사서 영어 단어를 익히고, 영어책을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행운이 온 것이다. 올 여름에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 신문사에서 학생 기자를 뽑는다며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다. 영어로 에세이를 쓰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너무 생소한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며칠을 고민한 후에 열심히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 밤을 지새워 가며 영어로 에세이를 완성했다. 물론 영어 선생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도와주셨다. 나는 내가 학생 기자에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영어로 에세이를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렇게 가까스로 제출했다. 학생 기자 발표도 잊은 채 여름 방학이 왔다. 학교에서 보충 학습을 하고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아버지께서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다. 내가 학생 기자에 뽑혔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도 못한 일에 너무 기뻤다. 모든 선생님들이 나를 축하해 주시고, 친구들도 축하해 주고, 동네 사람들도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다. 학생 기자가 된 내 또래의 아이들은 모두 다 민족사관고, 외고, 혹은 미국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뿐이었다. 내가 느끼기엔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뽑힌 것이다. 그곳에선 내게 VJ특공대에 나가 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갑작스런 모든 상황이 나는 모두 꿈인 것만 같았다. 부모님께서는 모두 텔레비전에 나간다며 집안 청소를 하시기에 바쁘셨다. 나중엔 결국 방송에 나가는 것은 취소되었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 버렸다.

비록 농촌에 살지만 노력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했다. 만약 농촌에 살면서 내 고등학교 초기 때처럼 혼자 자괴감에 빠진 학생이 있다면, 나는 "우린 행복한 거예요. 이 맑은 공기, 맑은 물, 따뜻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한다면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 주고 싶다.

요즘은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서서히 가을이 오고 있다.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실에 들어오는 잠자리, 벌 때문에 우리들은 한바탕 웃곤 한다.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농촌. 나는 이곳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도시 콘크리트의 삭막함보다는 농촌의 따뜻함을 선물해 주고 싶다.

나의 일일 농촌 체험 일기

고등부

정 혜 미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지난 5월, 우리 가족들은 진천에 있는 논으로 모내기를 하러 갔다. 우리 가족들은 처음으로 하는 모내기 생각에 모두 아이처럼 들떠서 시간 가는 줄 도 모르고 진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약 1시간 정도 후에 논에 도착한 우리들은 물 때문에 진흙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직사각형의 땅을 볼 수 있었다. 논의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도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와 함께 모내기를 도와주실 아저씨 한 분도 계셨다.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내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모내기하는 모습은 많이 보셨지만 직접 모내기를 한 경험은 없으셨고, 또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옛날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나도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TV에서도 몇 번쯤을 봤지만 직접 본 적도 해본 적도 없었다.

부모님께서 아저씨와 말씀을 나누실 동안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언니와 나는 논 안에서 처음으로 보는 신기한 기계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까 그 기계는 이앙기라고 하는 기계였고 사람 대신 모를 심어 줄 고마운 기계라고 했다. 이앙기는 작은 소형차 정도의 크기였지만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대가족이 모두 모여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랐던 모내기를 2~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모두 끝낼 수 있다는 말에 대단하고 고마워 보였다. 사실 나는 그 기계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논의 양 끝에 실을 매어 놓고 실을 따라서 사람이 모를 심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그런 건 옛날에나 하던 방식이고 요즘은 이 이앙기를 써서 모를 심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

에서 떠돌던 쨍쨍한 햇볕 아래에 수건과 모자를 쓰고 허리 굽혀 모를 심으며 흐르는 구슬땀을 수건으로 쓱 닦던 상상 속의 내 모습은 저 멀리로 사라졌다. 입 밖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심 모심기가 걱정이었던 언니와 나는 부모님 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가져온 호미와 장갑과 콩 씨앗을 들고 어머니께 갔다. 비록 직접 우리가 모내기를 하진 않았지만 상상대로 모자와 수건을 목에 둘렀다. 아버지께서는 아저씨와 함께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시고 언니와 나는 어머니와 함께 논 주변에 콩을 심을 것이라고 하셨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휘관이신 어머니께서는 연대장인 언니에게 호미로 내 손바닥 길이 정도의 땅을 파라고 말씀하시면서 언니가 파야 할 지점을 표시해 주셨고, 날씨가 무척 더워서 주전자로 내가 심고 난 후에 물도 조금씩 주라고 시키셨다. 그런데 콩을 심으려고 보니 언니가 파 놓은 구덩이가 맘에 들지 않았다. 평소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언니는 이번에도 그냥 대충대충 구멍을 파 놓은 것 같아 보였다. 나는 군소리 없이 콩을 심다 말고 언니에게 가서 나와 역할을 바꾸자고 했다. 자기가 파 놓은 구덩이를 뚱한 표정으로 보던 언니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막상 언니와 역할을 바꿔서 해 보니 땅도 그냥 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고, 특히 무거운 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콩 심은 데 물을 붓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뜨거운 햇빛까지 더해져서 언니와 나는 꼭 프라이팬 위에서 실컷 볶아진 후에 짐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해야 했다. 그렇게 힘들게 콩을 다 심고 나서 언니와 나는 너무 더워서 나무그늘 근처에 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콩 심기는 별것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옥수수도 심어야 한다고 하시더니 또 다시 언니에게는 호미를, 나에게는 옥수수씨를 주셨다. 이제부터는 옥수수인 것이다.

옥수수씨도 역시 콩씨처럼 옥수수를 말린 것이었다. 그런데 콩씨는 잘 자

랄 것 같았지만 옥수수씨는 너무 바싹 마르고 딱딱해서 과연 자라서 옥수수가 열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아니, 과연 자랄 수 있긴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강원도에 사셨던 할머니께서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옥수수씨를 주셔서 정말 옥수수를 말린 것이 옥수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해야만 했다. 그 때 갑자기 외갓집에 가면 늘 걸려 있는 옥수수에 붙어 있던 옥수수알들이 심기 위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때는 책을 많이 봐 뒀으면 이런 멍청한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에 가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라는 다짐도 했었다.

옥수수를 심기 위해 호미로 땅을 파던 언니는 자기 스스로가 땅을 파는 자신의 속도와 구덩이의 완성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느꼈던 것인지 나에게 자랑스레 브이(V)자를 했지만 나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옥수수씨를 심고 나서 언니가 파야 할 땅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씨가 무척 더워서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언니는 머쓱해졌는지 다시 땅 파는 데 몰두했다. 마침내 땅을 다 판 후에 옥수수씨를 다 심은 언니와 나는 다시 휴식을 취하러 아까 갔던 그늘로 되돌아갔다. 제1차 콩심기 전쟁이 끝난 후 잠깐 동안의 달콤한 휴식을 맛봤던 나무그늘 아래서 언니와 나는 제2차 옥수수심기 전쟁이 다 끝난 것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며 아버지께서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시는 모습을 편히 앉아서 보고 있었다.

벌써 이앙기는 아버지와 아저씨를 태운 채로 논의 양 끝을 쉴 새 없이 일직선으로 움직이며 갈색 땅을 연녹색의 푸르름 가득한 곳으로 바꾸고 있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모를 보면서 이번 추석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농사지은 쌀을 먹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설레이는 가슴으로 모내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푸른색의 생명력 넘치는 모가 논의 2/3 이상을 채우고 모내기는 거의 끝나 가고 있었다. 때마침 저쪽에서 어머니께서 점심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언니와 나는 어머니를 도와 이번

에도 열심히 밥상을 준비했다.

육체의 고된 노동 끝에 먹는 밥은 정말 꿀맛 같았다. 사실 콩과 옥수수심기는 고된 노동의 축에도 못 끼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며 처음으로 해 보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고된 노동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별로 맛있지도 않았던 음식들도 입에 넣기만 하면 꼭 꿀맛 같았다. 또 내가 매일 먹고 있던 이 반찬과 밥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고 또 직접 농사일을 체험해 보니 시장에서 사기만 하면 간단했던 쌀과 채소들이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농민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집까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리고 어제는 지난 5월에 우리 가족이 열심히 심었던 옥수수를 직접 따서 껍질도 내가 직접 벗기고 삶는 것도 직접 해서 정말 보람 있고 맛있게 먹었다. 다행히 충북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난 5월의 힘들었던 하루가 다 보상되는 느낌었다. 비록 농약을 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고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것보다 옥수수가 맛있었기 때문에 벌레가 파먹은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벌레가 안 파먹은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실없이 웃음이 흘렀다. 그러나 콩은 심을 때 한 구덩이에 너무 많은 씨앗을 넣어서 콩이 제대로 달리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나고 나면 콩이 약간이라도 달릴 것이니 그때까지는 가만히 두어야 한다고 하셨다.

하루 동안에 겨우 콩 조금과 옥수수 조금을 심은 내가 1년 동안 관심과 사랑을 모두 쏟아 부으며 자식 같이 벼와 채소들을 키우시는 농부아저씨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5월의 어느날 하루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책만 읽고 공부만 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시작은 모내기, 그리고 끝은 보람이 되는 이 농촌 체험을 꼭 다시 해보고 싶다.

고추 따는 할머니

중등부

장 성 진 대전 대전중학교 1학년

한 낮의 더위가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었다. 내리쬐는 햇살은 마치 세상을 모조리 태우려는 기세다. 토요일 아침, 아버지께서 요즘 농촌에서는 한창 고추 따는 시기라고 하시며 혼자서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외할머니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자고 말씀하셨다. 외할머니댁은 충남 논산의 작은 농촌마을이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차를 타고 에어컨을 틀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논산을 향해 달렸다. 외할머니댁에 갈 때면 늘 창밖으로 논과 밭이 많이 보여서 기분이 상쾌해진다. 지난번에 갈 때는 벼이삭들의 키가 작았는데 오늘 보니 키가 부쩍 자라서 온통 초록 물결 투성이였다. 머지않아 벼이삭들이 노랗게 고개를 숙이는 때가 오겠지 생각하며 파아란 하늘에 몽실몽실 떠 있는 구름들을 쳐다보았다. 솜사탕 같은 구름, 양털 같은 구름 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항상 양촌 부근을 지날 때마다 쾌쾌하고 구리구리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하지만 두엄 냄새, 거름 냄새라고 생각하며 숨을 꾹 참으며 지나쳤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농촌의 향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독하다.

할머니댁에 도착하였을 때 할머니께서는 어김없이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더욱 새까맣게 타버린 할머니의 얼굴 위에 미소가 그치지 않았다. 더운 데 어떻게 왔냐고 하시면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신 채로 텃밭에 가셔서 저녁 반찬거리를 따 오셨다. 식사 준비를 하시는 동안 나는 할머니방에 들어가 벌러덩 누웠다. 아파트 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할머니의 누렇고

초라한 방에는 할머니의 고단한 체취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저녁밥을 차려 주셨다. 언제 먹어도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은 꿀맛이다. 반찬은 야채와 된장찌개뿐이지만 그 맛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입에 쫙 달라붙는 맛이다.

밥을 다 먹은 후 휴대용 모기장을 마당에 쳤다. 대전에서는 모기장을 치고 자는 일이 없지만, 할머니댁은 시골이라서 모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잤다가는 이튿날 온통 곰보 투성이가 되고 만다. 또 어찌나 모기가 아프게 무는지 모기장 옆에 반드시 모기향을 피우고 자야만 간신히 잘 수 있다. 동생 성민이는 모기장이 무슨 놀이터인 양 들어와서는 뛰고 뒹굴고 야단법석을 떤다.

캄캄한 시골의 밤풍경은 제법 운치가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와 개구리의 뽀드득거리는 노래랫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모기장 밖을 쳐다보았다. 나무에 붙어서 울어대는 매미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여치들이 보였다. 낮에 내리쬐던 더위가 어디로 사라졌나 싶을 정도로 살짝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말 환상적이다. 밤이 되자 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검은색 비단 위에 온갖 보석들을 박아 놓은 것 같았다. 눈부신 별들이 서로 반짝거리며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허공에 있는 별들을 꾹 눌러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내가 아는 별자리들이 있나 하고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별자리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책으로 보았을 때는 쉽게 알 수 있던 별자리였는데 막상 실제로 찾아보려고 하니 정말 어려웠다. 어느 것이 북두칠성인지, 카시오페이아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결국 별자리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별들을 바라만 보고 있자니 가슴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형, 별 진짜 많지? 그치? 정말 대단해. 대전에서는 별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아!"

흥분한 성민이는 모기장 안에서 하늘을 향해 점프를 해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내일 고추를 따려면 잠을 일찍 자야 하는데 모기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웽웽거리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까 성민이가 모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기장 지퍼를 열었을 때 들어온 모양이었다. 겨우 모기를 잡고서 그제서야 잠을 자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야옹거리며 모기장 옆에 서 있는 것이었다. 고양이는 그렇게 잠시 서 있더니 이내 어디론가 가 버렸다. 담 넘어 옆집에서는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 야옹거리는 소리, 강아지 짖어대는 소리에 슬슬 짜증이 났지만, 대전에서 열대야 속에 잠을 설치던 것을 생각하면 시원한 할머니댁에서의 밤은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동생과 나는 마당에 펴 놓은 모기장 속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다가 곧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서 끓여 주신 된장찌개와 밭에서 따 온 고추와 오이들로 만드신 반찬, 그리고 맛있는 잡곡밥을 실컷 먹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고추밭으로 향했다.

할머니 혼자서 농사를 지으시느라 여간 고생이 많으신 게 아니었다. 대전에 나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면 좋을 텐데 할머니는 시골이 좋다고 하신다. 올해는 고추농사가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하셨다. 처음으로 고추 따기를 해 보는 내가 고추를 잘 딸지 걱정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고추 따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해 봤더니 꽤 쉬웠다. 고추를 많이, 그리고 빨리 따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막 땄다.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꼭지를 따면 고추가 금방 썩으니까 꼭지도 같이 따도록 해라."

나는 고추의 꼭지는 생각도 못했다. 그저 빨갛게 익은 고추만 따면 되는 줄 알았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꼭지도 같이 땄다. 그런데 고추를 열심히 따는 도중에 갑자기 팔과 눈이 매워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께 팔과 눈이 맵다

고 하였더니 고추를 딸 때는 원래 긴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매운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고추 따기를 잠시 멈추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올 것 같았고 기침도 나올 것 같았다. 양파를 깔 때나 눈이 매운 것인 줄 알았는데 고추를 딸 때도 이렇게 매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때, 어머니께서 무언가에 발을 물렸다. 할머니께서는 고추밭에 사는 모기 비슷한 곤충인데 그 곤충에 쏘였을 때는 소금물을 바르는 것이 좋다고 하시며 소금물을 발라야 하니까 집에 가자고 하셨다. 소금물을 바르기 위해 밭에서부터 할머니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그 곤충에 얼굴을 쏘여서 얼굴이 찌그러진 할머니들도 있다는 말씀과, 고추에 역병이 오르면 그 고추는 모조리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다.

정말 쉽게만 느껴졌던 고추 따는 작업이 이렇게 고되고 복잡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께서는 찐 감자와 옥수수를 바구니에 담으셨다. 사실 고추 따는 것보다 가족끼리 고추밭에 둘러앉아서 먹는 간식이 더욱 꿀맛이었고 재미있기만 했다. 잠시 한숨을 돌리고는 다시 고추 따는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신나게 고추밭 고랑 사이로 달려가다가 그만 고추 줄기를 밟아서 넘어질 뻔했다. 그것 때문에 멀쩡한 풋고추들이 여러 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빨간 고추만을 따야 하는데 내가 중대한 실수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풋고추는 저녁에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온종일 밭고랑을 누비면서 다리를 오그리고 고추를 땄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노을 지는 저녁이 돼서야 우리 가족과 할머니는 지친 어깨에 고추 푸대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따라 더욱 할머니 얼굴이 새까맣게 보였다. 이마에 주름살도 두어 개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예전에는 할머니댁에 놀러오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는데 이렇게 힘든 농사를 홀로 지으시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왔다. 할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없는 외로운 농촌 마을에서 아침저녁으로 마당에 빨간 고추를 널고, 거두고 하

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늙어서는 이런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손자들이 마음껏 놀러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고추를 열심히 땄지만 할머니께서는 앞으로도 열흘은 더 따야 한다고 하셨다.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돌아서는 우리 가족들은 마음이 무거웠다. 한나절 일했을 뿐인데 온몸이 쑤시는 듯이 아파 왔다. 할머니께서는 고추며, 된장, 오이 등을 한 차 가득 트렁크에 실어 주셨다.

"야들아, 가서들 공부 열심히 해야 헌다. 알았지?"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셔야 해요."

"내 걱정은 하지 말어. 니들이나 건강하면 된다."

오랫동안 할머니는 대문 밖에서 손을 흔들며 우리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계셨다.

초록물결 가득한 고추밭이 바람에 흔들거렸다. 할머니의 주름살과 갈라진 손마디가 가슴에 아로새겨져서 빨간 고추만큼 매워짐을 느꼈다. 나는 입김을 '후우' 하고 불어서 차 유리에 '할머니' 라고 썼다. 고추 따는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이 차창 너머로 달음질쳐 도망가고 있었다.

엄마의 품으로

중등부

남궁 은 비 당진 호서중학교 1학년

답답한 차 속에서 잠도 자고 싸우기도 하면서 우리 가족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차바퀴는 열심히 굴러가고 나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았다.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차 속에서 보내며 우리 가족이 도착한 곳은 외할머니댁.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높은 산과, 자신이 입은 푸른 옷을 뽐내기라도 하려는 듯 한들거리는 나뭇잎들이었다. 차에 계속 앉아 있어서 몸이 많이 뻐근했지만,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있으니 어느새 내 몸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자연 바람을 더 쐬려고 하기도 전에 평소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던 아빠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즐거워하시며 외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러 가시고, 나도 고추를 따러 가자는 엄마의 말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고추를 따러 가게 되었다. 엄마를 따라 도착한 외할머니의 고추밭. 외할머니의 넓은 밭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은 종잇장 구겨지듯 구겨지고 말았다. 하지만 엄마는 나의 표정 변화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고추를 따기 시작하셨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딴 고추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는지, 나에게 뭐라고 하셨고, 나는 삭막한 도시인 울산이 고향인 내게 고추 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엄마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반박을 했다. 이렇게 엄마와 나는 한참 말싸움을 하다 고추도 몇 개 따지 못하고 외할머니댁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 조금 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외할머니께서 모두 함께 가 감자를 캐자고 하시는 것이었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안 그래

도 아침에 고추밭에 갔다온 것 때문에 다리에 풀독이 돋아 있었기 때문에 짜증이 더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할머니의 말씀에 싫다고 하지 못하고 감자밭에 가 힘겹게 비닐을 치우고 쪼그려 앉아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자를 캐다 말고 언니와 나, 동생 두 명은 덥다며 가까이에 있는 계곡으로 향했고,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신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계곡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이렇게 밭과 외할머니댁을 오가는 동안 우리의 여름 휴가는 끝이 나고 말았다.

집에 와서 나는 외할머니댁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번 휴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내가 싫어하는 밭일을 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 울산에 있는 친구와 컴퓨터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매연 냄새 때문에 괴롭다며 자신도 한 번 농촌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저번에 학교에서 갔던 고구마 캐기가 꽤 재미있었다며 그나마 촌으로 간 내가 부럽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처음 당진에 왔을 때 울산보다 촌이라며 이곳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곳이 촌이라서 좋다니……. 조금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가 날 부러워한다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서 나는 친구의 부럽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외할머니댁에서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 내가 가서 밭일을 한 것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계곡에서 논 것은 좋았다. 비록 풀독이 올라 괴로웠지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 어느새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밭이나 계곡이나 농촌에 속한 다 같은 자연인데 왜 계곡이 더 좋게 느껴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각했던지……. 그러다 내 몸이 농촌보다는 편안한 도시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계곡에서 노는 것은 그저 놀기만 하기에 기분이 좋

았던 것이었고, 밭에서 일하던 것은 내가 땀 흘려 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싫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힘들여 일하며 즐거움을 찾는 농촌과 힘들이지 않고 편히 사는 도시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많은 풀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자만해 했는데, 외할머니댁에 가서 많은 풀들을 보니 내가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을 느낀 나는 당진에서도 농촌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내 머리 속에 스친 것은 아빠의 작은 텃밭이었다. 평소 밭일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아빠는 텃밭을 만들어 채소나 곡식을 키우셨다. 나는 바로 아빠의 텃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름을 잘 모르는 곤충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평소 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러다 밭에서 아빠를 만나 '오늘 하루는 어린 숙녀 농부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빠를 도와 밭일을 하게 되었다. 자연의 소중함을 잘 모르던 외할머니댁에서는 밭일 하는 것이 왠지 내가 할 일이 아닌 천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나서는 나 스스로가 밭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작은 텃밭이지만, 이 텃밭에서 내가 도시의 편안함이 아닌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 아빠를 도와 시작한 밭일에 내가 많이 서툴고 어색하게 일 처리를 했지만, 어린 농부가 되었다는 느낌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외할머니댁과 아빠의 텃밭에서 일한 것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고통도 많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만을 선호했던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농촌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그저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저 할머니들 덕분에 맛있는 채소들을 먹지만, 왜 저런 일을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나보다 오래 사신 할머니들께서 많은 정과 추억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농촌도 도시보다 오래 전에 생겨 났기에 나에게 많은 추억과,

더 많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는 농촌보다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시를 선호한다. 하지만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도 지구라는 큰 틀 속에 살아 숨 쉬는 일부라는 생각과 함께 농촌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이 좋다는 말이 요즈음 도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나 보다. 삭막한 도시 생활보다 예쁜 산새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더 좋다는 것을 사람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 아름다운 농촌이 옛날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며 우리를 보살펴 준 엄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라져 가는 농촌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다시 태어나 멋진 추억을 사람들에게 남겨 주는 엄마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농촌도 지구에 존재하는 하나의 땅이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모습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밥이 내게 올 때까지

중등부

김 유 진 여수 여의도중학교 2학년

화창한 봄 5월 13일. 나는 전남 나주시의 친할머니댁의 모내기를 도와드리고 근처의 노인당에서 봉사 활동도 할 겸해서 여수에서 나주로 갔다. 친할머니께서는 일꾼들을 거의 안 쓰신다. 대신 시간이 좀 나는 친척들이 와서 도와주고 쌀을 가을에 얻어 가신다. 나는 할머니댁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고 작업복으로 갈아 입어야 했다. 보니 고모부와 고모가 와 계셨다. 같이 모심는 것을 도와주시러 오신 것이다. 방수 처리되는 두껍고 까만 작업복, 무릎까지 오는 노란 장화. 그 차림에 오토바이를 타고 할머니와 함께 논으로 갔다. 풀포기 하나도 없는, 물이 가득한 논이었다. 족히 300평은 돼 보이는 시커먼 논의 곳곳에 놓여 있는 오늘 해야 할 일감들. 물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내 앞으로 당당하게 황소개구리가 뛰어간다. '잘 만났다! 네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한다지?' 하며 옆의 큰 돌로 던졌다. 명중이다. 그러곤 다리를 잡아 몸을 들어 옆길의 아스팔트 길 한가운데로 던져 버렸다. 속이 참 시원했다. 옆의 밭에는 촉촉한 물기 있는 곳에 어린 청개구리가 길을 잃고 설치고 있다. 그걸 본 순간 저 멀리 팔짝팔짝 뛰는 더 큰 청개구리가 보였다. 당장 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나도 그렇게 해 줄 여유가 없고 혼자서 부모를 찾아 가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힘이 장사인 나는 벼 한 바구니를 들어 내가 해야 할 구역에 가져다 놓았다. 몇 개를 논에 심어 보고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외치니 할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게 낮게 묻으면 벼가 나중에 잘 쓰러진다고 하시며 좋게 가르쳐 주셨

다. 열심히 하려고 한 번에 한 벼, 또 한 번에 한 벼 그렇게 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렸다. 오늘 겨우 7시간 했는데 손가락이 아프고 계속 허리를 숙이고 하니까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발가락이 붓고 종아리가 정말 단단해졌다. 하루에 이 정도 했는데 논에서 나와 보니 정말 열심히 많이 한 것 같다. 늙으신 분들은 항상 이 일을 주업으로 하고 계신데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실지 뼈저리게 느낀다. 매일 하루 3번씩 먹는 주식인데, 만드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특히 여름인데 땀띠도 나고 매일 집에서 샤워해야 하고, 나는 처음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할머니 앞에서 투정을 부리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기 전에 밤 늦게 엄마께 전화를 해서 피로를 털어 놓았다. 하지만 내가 밥을 짓기까지 어떻게 쌀이 만들어지는지 체험해 봐야 쌀이 귀한지 알 수 있다며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셨다. 다음날은 근처의 PC방을 일찍 가서 인터넷을 이용해 벼의 한살이를 찾아보았다. 봄에 심어 놓고 가을에 추수하는 과정의 기간이 너무 길다. 다른 음식은 공장에서 하루 만에 나오는데, 한국인의 주식답게 만드는 과정도 까다롭다. 이걸 보니까 모 심을 때 농민들의 땀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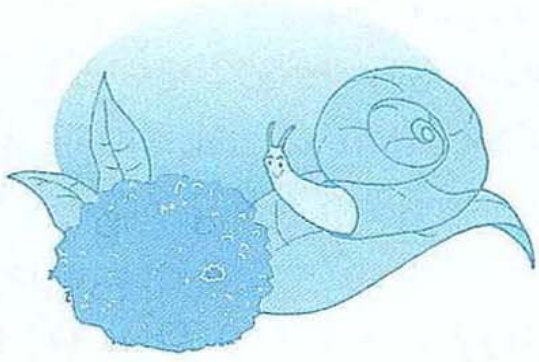
이틀간 계속 했더니 발도 이제 그새 적응이 되었는지 아프지 않다. 굳은살도 약간 박혔고, 그렇게 일을 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나중에 먹는 밥맛이 더 맛있어지고 더 먹게 되었다. 이게 바로 꿀맛이라는 것 같다. 드디어 2일간의 모심기가 끝났다. 너무 홀가분하고 뒷산에서 우리 할머니의 논을 보니 그 큰 논들이 모두 거무튀튀한 색에서 새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정말 푸른 들판 같았다.

곧 가을이 되면 황금 들판으로 바뀌어 내가 심은 모가 벼로 성숙이 되어 곧 우리 가족의 입에 들어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왠지 모를 특별한 성취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한 가지 고난이 남아 있다. 노인당이 남아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심기보다는 쉬우니까. 하지

만 혼자 하기엔 방이 너무 넓다. 그래서 설날에만 보는 나주에서 사귄 친구와 같이 하기로 하였다. 2명이서는 더 턱없이 부족하지만 말이다.

예상 의외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별로 안 계셨다. 그래서 혼자서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은 씻겨 드리고 그 큰방들을 모두 쓸고 닦고, 3시간 동안 아프신 곳을 주물러 드리며 말씀을 나눴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안에 외로운 슬픔이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안 계시는 분들은 아들, 딸들이 같이 산다고 다른 곳으로 내려 가셨다고 하셨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통화가 두절된 채 계속 여기서 신세를 지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 슬퍼지실까 해서이였다. 나는 절대로 할머니, 부모님께 내가 실업자가 되거나, 사업을 아주 잘해도 절대로 모른 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1박 2일 동안 밥의 소중함과 내 생의 가장 특별한 성취감과 노인 공경과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뭐든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여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농촌 정서는 도시인들의 삶과 질을 높여

심사 위원장 申 世 薰
(現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농림부 주최와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주관으로 농촌문화 체험 수기를 공모했다. 농촌을 떠난 도시민들의 2~3세들이 도농생활 교류정서를 수기로 풀어 주었다. 감동 깊은 작품들이 많았다.

중 · 고 · 대학 · 일반부 총 응모 편수는 1,130편, 이 중 중등부가 272편, 고등부가 482편, 대학 · 일반부가 376편이라는 많은 작품이 응모됐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은 각각 30편씩으로 3개분야 모두 90편, 여기서 다시 압축 심사로 들어가 3개분야별 6명씩에 대상(전체) 1명을 보태 총 19명을 선정하였다. 대상 · 금상 · 은상은 농림부 장관상, 동상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상, 한국일보사 사장상이 주어진다.

최종 본선은 申世薰(한국문인협회 이사장), 金容五(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李光馥(한국문인협회 사무처장 대우 편집국장 · 이사) 등 3명이 한국농촌공사 회의실에서 심사를 가졌다. 이때 막상 막하의 응모 수기를 주제, 문장력, 감동까지를 감안해 가며 함께 심사했다.

"농촌을 진실한 자신의 삶으로 육화시킨 미래지향적인 시각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김용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기행' 수준에 머문 글도 없지 않았다. 개성 있고 독창적인 글, 즉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진 글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이광복)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다.

'대상' 은 고등부에서 나왔다. 수기 〈황소의 눈물〉은 농촌에 대하여 본인이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진솔하고도 솔직하게 담은 작품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도농 교류를 위하여 실시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활동들이 도시민 자녀들에게는 우리 농촌이 희망이 없고 비관적인 공간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체험을 통하여 농촌 정서가 도시 정서와 교류하며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퍽 기여하고 있다는 짙은 느낌을 받았다. 농촌 생활도 이제는 도시인들의 향수와 꿈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다는 것에 한껏 희망을 걸 수 있었다.

◑ 본 심사위원

신 세 훈

- 시인, 現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 1941년 경북 의성 출생
-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부 당선
- 1966년 인헌무공훈장 수상
- 1978년 제3회 시문학상 수상
- 제10회 예술문화대상(문학부문) 수상
- 중앙대학교, 명지대학교, 홍익대학교 강사 역임
-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부회장(2차 선임)
- 現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한국청소년문인협회 회장, 한국상고사학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동창회 부회장, 도서출판 天山 및 自由文學 대표
- 주요 작품

  시집 〈꼭둑각시의 춤〉 〈뿌리들의 하늘〉 〈3 · 4 · 5 · 6調〉 〈조선의 천평선〉 등 편역저 23권 등

김 용 오

- 시인
- 1942년 경북 포항 출생
- 1982년 월간 『시문학』에 詩 〈들〉, 〈봄비〉로 등단
- 1988년 현대시인상 우수상 수상
- 1990년 한국시문학회 회장 역임(2회)
- 1999년 제24회 시문학상 수상
- 2002년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이사
- 2006년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 現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 주요 작품

  시집 〈신의 수염〉 〈동화작용〉 〈두사람에 관한 성찰〉 〈멀티오르가슴〉 〈사부곡〉, 잠언집 〈시인모독〉, 주요 평론 〈신인 김윤성〉 등

이 광 복

- 소설가
- 1951년 충남 부여 출생
- 1976년 『현대문학』 소설 〈불길〉 〈香煙〉 추천으로 등단
- 1979년 『월간독서』 장편소설 현상모집 당선
- 1994년 한국소설문학상 수상
- 1995년 조연현문학상 수상, 대통령표창 수상
- 2005년 한국예술문화상 수상
- 現 『한국문인협회』 이사 겸 사무처장 대우 편집국장,
  『한국소설가협회』이사
- 주요 작품
  창작집 〈화려한 밀실〉 〈사육제〉 〈겨울여행〉 〈먼길〉, 장편소설 〈풍랑의 도시〉 〈목신의 마을〉 〈폭설〉 〈열망〉 〈술래잡기〉 〈바람잡기〉 〈송주임〉 〈삼국지/전8권〉 〈불멸의 혼/계백〉 등

◑ 예비 심사위원

송 세 희

- 시인
- 1953년 부산 출생
- 1995년 『자유문학』 시부문 〈늦가을 검은 점박이 호랑나비〉 신인상으로 등단
- 『해방공간으로 가는 문학회』 사무국장 역임
- 現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대우 차장, 현대시인협회 이사, 고우회 회원
- 「시와 전각 동인회」 회장
- 주요 작품
  시집 〈가을 진달래〉, 詩 〈달그림자〉 〈호접난〉 〈무심천〉 〈물에 빠진 수종사〉 등

구 순 희

- 시인
- 1952년 경남 양산 출생
- 1981년 『현대시학』에 〈갯여자〉 〈어떤 시절〉 〈고양이 울음 소리〉로 등단
- 現 한국문인협회 편집국장 대우
- 주요 작품
  시집 〈그대 내게로 와서〉 〈내 안의 가장 큰 적〉 〈수탉에게 묻고 싶다〉 〈누군가를 만날 것 같다〉 〈군사 우편〉 등

오 현 정

- 시인
- 1952년 경북 포항 출생
- 1989년 『현대문학』 2회 추천 완료(이원섭)
- 現 한국문인협회 간사, 『자유문학』 편집실장, 기독교문협 이사
- 주요 작품
  시집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마음의 茶 한잔 · 기타 詩〉 〈물이 되어, 불이 되어〉, 民謠詩集 〈봄온다〉, 번역명상집 〈고행〉 (니코스 카잔차키스) 등

장 성 유

- 아동문학작가
- 1968년 경남 산청 출생
- 1998년 계간 『아동문학평론』에 동화 〈열한 그루의 자작나무〉 당선으로 등단
- 『아동문학평론』 편집위원, 『자유문학』 편집장, 『제2차 세계아동문학대회』부집행위원장 역임
- 주요 작품

  장편 환상동화 〈마고의 숲〉, 그림책 〈동글랑의 꿈〉 〈쿵더쿵 아저씨〉, 산문집 〈손이 아니라 혼으로 일한다〉 등

상명칭 및 의미

대상 : 해오름상

- '해오름' 은 '해가 떠오른다' 는 의미로 '새로운 시작' '희망' '도약' 등을 내포
- 대지와 대양을 기반으로 솟아오르는 태양의 영원성, 생명력, 활력,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새롭게 도약하는 농촌', '생동감 넘치는 농촌', '미래의 희망이 있는 농촌' 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

금상 : 황금들녘상

- ' 황금들녘' 은 우리 농촌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명칭으로서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표현
- 농부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 모든 이의 마음을 뿌듯하고 풍요롭게 하며, 자연 현상을 이겨내고 풍요로운 결실을 나타내는 황금들녘의 시원스러움과 풍요로움은 여전히 그립고 멋진 농촌의 상징

은상 : 흙사랑상

- '흙사랑' 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포괄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으며, 흙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고향' 을 표현하고, '사랑' 은 사람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힘을 의미
- '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농촌이 도시는 물론 모든 이를 사랑으로 너그러이 감쌀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

동상 : 반딧불이상

- '반딧불이' 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하고 순수한 자연' 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라져 가는 농촌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을 표현
- 여름 밤하늘에 깜빡거리는 반딧불이의 이미지는 사라져 가는 농촌 문화에 대한 향수와 작은 불빛으로 넓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함축적으로 표현

지도교사상 : 아우름상

- '아우름' 은 '둘 또는 여럿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함' 을 의미
- 도시와 농촌의 문화를 하나로 아우르고 여럿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서 학생들을 한데 "아울러" 이 행사에 기여한 분에게 드린다는 의미

단체상 : 어울림상

- '어울림' 은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됨' 이라는 의미
-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려 하나의 목표를 일구어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표현으로 농촌과 도시의 가로막을 허물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

제3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공모개요

▶ 목 적

- 중 · 고 · 대학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촌문화 체험기를 공모하여 농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농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 마련
- 공모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 체험 및 농촌 방문 활성화 도모

▶ 추진체계

- 주 최 : 농림부
- 주 관 :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일보사

▶ 공모 주제

- 우리 농촌문화의 직접 체험을 통해 느낀 다양한 이야기

▶ 공모 기간 : 2006년 7월 4일 ~ 9월 18일

▶ 응모 대상 : 전국 중 · 고 · 대학생 및 일반인

▶ 접수 방법 : 인터넷,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심사기간 및 방법

- 심사기간 : 2006년 9월 ~ 11월
  - 예비심사 : 2006년 9월 27일 ~ 10월 11일
  - 본 심 사 : 2006년 10월 16일 ~ 10월 25일
  - 최종심사위원회 : 2006년 11월 2일
- 심사방법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심 및 본 심사로 실시
  - 예비심사 : 부문별 예심위원 개별심사(부문별 시상작품의 3배수 선정)
  - 본 심 사 : 예심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후,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 최종 결정

▶ 심사 기준

- 개인(부문별) 응모작 심사 기준
  - 농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작품
  - 농촌의 자연성이 잘 표현되고, 농촌의 다양한 체험 및 농촌에 대한 느낌을 순수하고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
  - 심사위원의 문학성과 작품성을 고려하여 수상작 선정

▶ **우수지도교사상 심사기준**

– 우수하고 창의적인 작품의 응모를 장려하여 다수의 입상을 지도한 교사

▶ **단체상 심사기준**

– 다수 작품의 응모를 장려하여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한 학교

▶ **수상자 발표** : 2006년 11월 13일

• 개인부문 : 대상 소영한(전주 영생고) 외 18명

• 단체부문

– 단체상 :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 우수지도교사상 : 권태봉(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 **시상일자 및 장소** : 2006년 12월 13일, 한국농촌공사 연수원 대강당

▶ **시상내역 및 시상금** : 총 21점(1,290만원)

▷ 개인부문(19점)

• 농림부장관상(상장 10점)

– 대 상 : 1명(상금 300만원)

– 금 상 : 부문별 각 1명
(상금 중등 50만원, 고등 100만원, 대학 · 일반 200만원)

– 은 상 : 부문별 각 2명
(상금 중등 30만원, 고등 50만원, 대학 · 일반 100만원)

• 한국농촌공사 사장상 및 한국일보사 사장상(상장 9점)

– 동 상 : 부문별 각 3명(상금 중등 10만원, 고등 20만원, 대학 · 일반 30만원)

▷ 교사상 및 단체상(2점)

• 농림부장관상(상패 2점)

– 우수지도교사상 : 고등학교 지도교사 1인(상금 50만원)

– 단체상 : 고등학교 1개교(상금 50만원)

* 중등부문 지도교사 및 단체상 : 수상자(단체) 없음

2006 제3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수상작품집

발 행 일 : 2006년 12월
발　　행 : 농 림 부
기　　획 :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인　　쇄 : 새한문화사

©한국농촌공사. 2006, Printed in korea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http://www.nongchon.or.kr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지합니다.